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軍宗教育을 위한 人格指導教育의 實態와  
그 改善方向 摸索에 관한 研究

A Study in the Actual Condition of Personality Improvement Education  
and its Amelioration Plan for Religious Education for Military

1994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忠 彬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軍宗教育을 위한 人格指導教育의 實態와  
그 改善方向 摸索에 관한 研究

A Study in the Actual Condition of Personality Improvement Education  
and its Amelioration Plan for Religious Education for Military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忠 彬

金忠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8月 日

審查委員長 金環培   
審查委員 金善京   
審查委員 曹美煥 

# 目 次

I. 緒 論 .....	1
1. 問題의 提起 .....	1
2. 研究의 目的 .....	2
3. 研究內容 및 方法 .....	2
4. 用語의 定義 .....	4
5. 研究의 制限點 .....	5
II. 理論的 背景 .....	6
1. 軍宗制度 .....	6
1) 軍宗制度의 意義 .....	6
2) 軍宗制度의 起源 .....	7
3) 軍牧의 役割 .....	8
4) 軍宗制度의 發展 .....	10
2. 軍宗教育 .....	14
1) 軍宗教育의 意義 .....	14
2) 軍宗教育의 目的 .....	16
3) 軍宗教育의 內容 .....	17
III. 結果分析 및 解釋 .....	33
1. 人格指導教育의 精神戰力 寄與度 檢證 .....	33
2. 人格指導教育의 參與度 檢證 .....	42

3. 人格指導教育의 必要性 檢證 .....	47
4. 人格指導教育의 內容 檢證 .....	50
5. 人格指導教育의 教官 檢證 .....	53
<b>IV. 改善方向 .....</b>	<b>55</b>
1. 人格指導教育의 높은 參與度 .....	55
2. 效果的인 人格指導教育 .....	55
3. 軍宗將校 中心의 人格指導教育 .....	56
<b>V. 要約 및 結論 .....</b>	<b>57</b>
1. 要 約 .....	57
2. 結 論 .....	58
<b>參考文獻 .....</b>	<b>60</b>
<b>附 錄 .....</b>	<b>62</b>
<b>ABSTRACT .....</b>	<b>67</b>

## 表 目 次

<표 1-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3
<표 2-1>	군부대 신자 현황 .....	13
<표 2-2>	인격지도 교육 중점 .....	29
<표 2-3>	1990, 1991년 인격지도 교육 주제 .....	30
<표 3-1>	정신전력 기여도 검증 .....	33
<표 3-2>	부대단결 기여도 검증 .....	35
<표 3-3>	부대발전과 사기진작 기여도 검증 .....	36
<표 3-4>	가치관 형성 기여도 검증 .....	38
<표 3-5>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 기여도 검증 .....	39
<표 3-6>	긍정적인 부대생활 기여 여부 검증 .....	40
<표 3-7>	종교행사 참석횟수 검증 .....	42
<표 3-8>	인격지도 교육 청강 기대 횟수 검증 .....	44
<표 3-9>	인격지도 교육 시간의 적절성 검증 .....	45
<표 3-10>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 인식 검증 .....	47
<표 3-11>	인격지도 교육의 타 교육시간과의 대비 검증 .....	48
<표 3-12>	인격지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 검증 .....	50
<표 3-13>	인격지도 교육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 활용 정도의 검증 .....	51
<표 3-14>	인격지도 교육 담당 교관 적격자 검증 .....	53

## 그 림 目 次

<그림 2-1>	군종활동 .....	19
<그림 2-2>	정신전력과 인격지도 교육 관계 .....	25

## I. 緒論

### 1. 問題의 提起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나을 법한 대답 중 하나는 軍社會일 것이다.<sup>1)</sup> 왜냐하면 이 땅의 젊은이들 중 만 20세가 되는 남성이고, 정신 박약자나 신체 불구자가 아닌 이상, 건전한 신체와 사상을 갖춘 청년이면 누구나 한번은 일정기간 동안 군대사회에 들어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軍에 입대한 그들은 군대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게 되며 이를 통하여 만족감도 얻게 되어 그들 나름의 독특한 人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군의 존재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위협에 대한 예방과 침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통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래서 군인의 使命을 국가에 대한 충성, 민족에 대한 충성,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두고 있는 것이다.<sup>2)</sup> 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군이란 국가가 필요로 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목적수행을 위해 조직된 힘”<sup>3)</sup>이라는 점에서도 군사회는 특수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사회이기 때문에 병사 개개인의 존엄성 및 자율성은 일반사회에 비해서는 크게 제약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병사 개인의 자율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는 그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sup>4)</sup>

1) 육군본부, 「한국의 군인정신」(서울 : 육군인쇄공창, 1982), p.11.

2)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국방부, 1984), p.38.

3) 육군본부, 「육군 군종사」(서울 : 육군본부, 1975), p.30.

4) 육군본부, 「상계서」, p.327.

따라서 군대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제반 갈등요소들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복무의 책무를 다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야 할 국가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만한 군복무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군종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 2. 研究의 目的

첫째, 군종제도와 군종교육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인격지도 교육 실태조사에서 하위 변인으로 학력, 종교, 계급에 따라 인식하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셋째,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장병들의 견해를 파악한다.

넷째, 인격지도 교육에 대한 장병들의 참여실태를 파악한다.

다섯째, 인격지도 교육의 장병들의 정신전력강화에 대한 기여도를 규명해 본다.

여섯째, 장병의 바람직한 인격지도 교육내용을 모색한다.

일곱째, 바람직한 인격지도 교육의 방법을 탐색한다.

여덟째, 인격지도교육 교관상을 설정한다.

## 3. 研究內容 및 方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研究內容

- (1) 군종제도의 내용고찰
- (2) 군종교육의 내용고찰
- (3) 인격지도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4) 효과적인 장병인격지도 교육 모색

## 2) 研究方法

### (1) 文獻研究

인격지도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기존의 문헌, 연구 보고서, 각종 통계자료 등을 분석·정리하였다.

### (2) 說問紙 調査研究

#### ① 研究對象 및 標集

본 연구는 1994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 까지 15일에 걸쳐 00부대 장교 50명, 사병 300명을 대상으로 임의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매를 배부하여 315매를 회수하여, 이중 300매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처리하였다. 설문지 배부, 회수율, 확정 자료수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 분	배 부	회 수	회 수 율 %	확정자료수
장 교	50	45	90%	41
사 병	300	270	90%	259
계	350	315	90%	300

## ② 設問紙 内容 構成

설문지 내용 구성은 설문 응답자의 학력, 종교, 계급 차이에 따른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해 내기 위하여 인격지도 교육의 정신전력 기여도 6문항, 인격지도 교육의 참여도 3문항,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 2문항, 인격지도 교육의 내용 2문항, 그리고 교관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의 처리

본 설문 자료처리는 각 문항별의 빈도수 측정과 변인간의 유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Chi-Square( $\chi^2$ )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 4. 用語의 定義

## 1) 軍宗制度

군종제도는 1948년 정달빈목사의 군목업무 담당으로 출발한<sup>5)</sup> 이래 1968년 불교의 승관요원들이 최초의 종군요원 임관을 계기로 “군목”的 호칭이 군종장교로 호칭케 되었다.<sup>6)</sup> 따라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요원을 총칭 “군종장교”라 불린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적 측면에 중점을 둔 군종제도의 개념이다.

## 2) 軍宗將校(Chaplain)

군에는 군인과 그 가족의 종교 및 종교교육을 위해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법사 등이 종군하고 있다. 이들을 “軍宗將校

5) 흥은혜, 「바다사랑 36년」(제해 36호, 별쇄), p.8.

6)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 보이스사, 1985), p.266.

(Chaplain)"라 한다.<sup>7)</sup>

### 3) 軍宗教育

군종장교의 제반 교육적 활동은 모두가 군종교육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병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종교적 신앙심 고취, 도덕적 책임성 제고, 정신교육을 포함한 군종장교의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군종교육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종교교육, 인격지도 교육, 기타교육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특히 인격지도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 5. 研究의 制限點

본 설문지는 00부대 장교와 사병들에 한정된 자료 분석의 결과이다. 여기에 나타난 인격지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전군 장교와 사병들의 인격지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밝혀진 인격지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들이 반드시 객관적인 보면 타당성을 가진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7) 김기태, 「전계서」, p. 249.

## II. 理論的 背景

### 1. 軍宗制度

#### 1) 軍宗制度의 意義

군종교육은 단순히 신자장병들을 중심으로 종교의식 집전이나 포교 활동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종교를 통한 장병들의 정신전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신전력의 형성요소는 ①신념 ②사기 ③단결 ④군기이다”<sup>8)</sup>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전력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정신에서 비롯된다. 여기서의 군인정신이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종교육은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으로서, 신념, 사기, 단결 및 군기확립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sup>9)</sup>”

또한 군종활동은 종교활동으로서의 필승의 신념 배양과 사생관을 확립하며, 교육활동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하고, 선도활동으로서의 건전한 병영생활과 전력 저해요소를 제거 함으로써 군인정신 함양과 정신전력제고에 기여한다.<sup>10)</sup>

신앙무장은 필승의 신념, 충성심, 희생정신 위에 종교의 기본정신인

8) 박상칠, 「정신전력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투입효과 연구」(원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p.11.

9) 국방부, 「정신전력 지침서」(국방부: 1984), p. 25.

10) 육본 군종감실, 「군종운영계획」(서울 : 육군본부, 1984), p. 47.

사랑으로 군인 상호간의 단결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도덕무장과 사상무장을 포함한 모든 교육운동의 핵심으로서 장병의 정신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첨경이다.

## 2) 軍宗制度의 起源

군종제도의 성립은 나라마다 일정하지 않은 것이나 군대조직과 병사들의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군종교육은 주로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법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 진다.

Chaplain은 원래는 Chapel을 맡은 승려나 사제를 말하나, 지금은 특수 목회에 위임받은 안수된 성직자를 말한다. Chaplain은 Merovingian와 Karolingian시대(5세기~9세기) 동안에는 Martin의 진기한 성물을 지키기 위하여 왕에 의하여 임명되었다.<sup>11)</sup>

군종제도의 기원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동방의 여러 왕들을 물리치는 사건 속에서 제사장이요,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개입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sup>12)</sup> 또 다른 예는 출애굽기 후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불리해지는 것을 본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다.<sup>13)</sup> 또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하였다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철저한 신앙의 소산이었다.

---

11)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이스사, 1985), p. 249.

12) 개역성경, 출애굽기 17 : 8-16.

13) 개역성경, 여호수아 6 : 1-20.

“군목은 제사장직으로서의 의식, 성례전, 화해의 역할과 예언자로서의 설교, 교육, 예언적 선포와 왕권으로서의 행정력이 있는 軍內에 現存하는 존재”<sup>14)</sup>라고 군목의 기능을 정의한다면, 모세는 애굽에 거하는 동족에 대한 여호와신의 대언자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금송아지 범죄 후는 40일 40야를 금식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전쟁을 하며 진행하는 전투부대 내에 동행하였고, 作戰時는 산상에서 勝戰을 祈願하는 기도를 드리는 등 軍牧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실제적 군목의 원형을 그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sup>15)</sup>

### 3) 軍牧의 役割

군목의 목회는 군대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활의 외부적인 특징은 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는 성직자를 나타내어 주는 성직자 의복보다는 군복을 입는다.<sup>16)</sup>

군목은 외형상으로 군복을 입고 있는 군 장교단의 일원이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속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교단으로부터도 통제를 받는 성직자의 일원이다. 군대의 규정에도 “군종장교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이다. 종단의 의무를 지키며 정기집회에 참여한다”.<sup>17)</sup> 이러한 군목은 때로는 역할갈등을 겪게 된다.

소속교단 후보생 선발은 국방부가 주관해서 하지만 선발된 후보생은 교단의 교리대로 가르치고, 목사안수를 하여 군대의 특수조직사회에 대

---

1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목부, 「군선교의 좌표」(서울 : 총회교육부, 1983), p. 21.

15)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 보이스사, 1985), pp. 253-254.

16) R. G. Hutcheson, 박상칠 역, 「교회와 군선교」(서울 : 실로암, 1988), p. 8.

17)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서울 : 육군본부, 1991), p. 7.

한 선교를 위해 군목을 파송한다. 사회의 실정법적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인 통제력은 일방적으로 군대라는 조직의 일원 즉 군인으로서 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군대조직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 하더라도 소속교단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나 군목은 소속교단에 대한 강한 조직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속교단의 통제를 받게 된다. 각 교단들은 군목들이 소속교단에 충성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그의 천부적인 소명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비군대적인 교단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다.<sup>18)</sup>

또한 군목은 단위부서의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육군 군종감실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군종의 자체적인 운용체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군종감실의 통제가 군대조직적 구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종단적 운용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대사회는 군목을 필요로 하고, 군목 역시 군대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활동하게 된다. 군목은 일반사회의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직으로서의 의식, 성례전, 화해의 역할과 예언자로서의 설교, 교육, 예언적 선포와 왕권으로서의 행정력을 가지고 부대내에 존재하는 목회자이다.<sup>19)</sup>

군목의 역할은 군대조직의 차원에서 장병들을 인격적으로 감화시켜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게 하고, 그 종교의 신앙심으로 사상을 투철히 하고 단결심을 배양하며 국가를 위해 충성토록 하여,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sup>20)</sup>

---

18) R. G. Hutcheson, 박상칠 역, 「전개서」, p.10.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목부, 「군선교의 좌표」(서울 : 총회교육부), p.21.

20)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서울 : 육군인쇄공창, 1991), pp.10-11.

## 4) 軍宗制度의 發展

### (1) 外國의 軍宗制度

군종제도는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교회사에서 볼때 군인과 수도사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활동한 최초의 수도사가 있었다. A.D. 316-400경에 활동한 St.Martin은 장교로 있다가 수사가 된 후, Tours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수도사 중대를 만들어 전쟁과 선교를 감행한 종교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 종교개혁의 3총사 중의 하나인 Zwinglich는 자기 교구의 젊은이들과 종군목사로서 여러번 이탈리아 전투에 참전했으나 후에는 카톨릭과 대항하는 개혁군에 종군하다가 전사 하였다.<sup>21)</sup> 또한 Jesuit 장군인 제임스 레넷쓰가 북아프리카에서 터키군과 전쟁할 때 스페인 장교 스왕레셀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에서 “내가 믿기는 귀하가 군대에 종교지도자를 보내 종군시킬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위안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 중에 저들의 임무를 더 성취할 것입니다.”<sup>22)</sup> 이 기록은 군목이 전선에서 장병들에게 품위있는 군인으로서 용감히 싸울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이 있음을 적절히 표현해 준 것이다.

영국의 Richard Boxter(1615-1691)는 신학을 이수하고 교직자가 되어 내란시에 국회군에 가입하여 종군목사가 되었다.<sup>23)</sup> 또 Elizabeth여왕 시대에 Francis Drake이라는 제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578년부터 1580년 사이에 세계를 항해하면서 영국교회의 Francis Fletber라고 하는

21)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이영현 외 3인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0), pp.273-274.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100주년 선교대회 준비위원회, 「한국선교대회보고서」, (서울 : 양서각, 1983), p. 283.

23) 김의환, 「교회사」 (서울 : 세종문화사, 1981), p. 379.

목사를 모시고 함사예배를 시작하였다. 그 후부터 영국 해군에서는 큰 배는 군목을 승선시켰고, 찰스 6세 때는 군목제도를 확립해서 16세기 이후 많은 성직자가 군목으로 종군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했다.

24) 이런 과정을 거쳐 1909년 영국 국방성에 군종부가 생겨났다.

미국은 영국의 군목제도에 기초해서 군목이 종군하도록 하였는데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드레이크만에서 최초로 예배를 가졌다. 1637년 전쟁때는 Samuel Stone이라는 목사가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후 1775년 7월 29일 George Washington 장군은 군목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25) 미국에서의 군목제도 성립은 1904년 국회에서 57명을 선발함으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8,171명이라는 성직자가 군목으로 종군하여 복음을 전하는 등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 (2) 韓國의 軍宗制度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조국방위를 위해 조선 경비대가 창설되었고, 전국에 흩어져 주둔하고 있는 경비대 내의 신자들은 인근 지역 민간교회의 협조를 받아 부대내에서 산발적으로 종교행사를 가졌다. 26)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손원일 제독은 해군에서 정훈이라는 이름 아래 군종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당시 이화여고 교목인 정달빈 목사를 초빙해서 군목업무를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 27)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시에는 전군에서 전상자들이 속출하였고,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100주년 기념선교대회 준비위원회, 「한국선교대회 보고서」(서울 : 양서각, 1983), p. 204.

25) 이용국, 「외국군의 군종제도 연구」(서울 : 육군정신전력학회, 1983), p. 1.

26) 김기태, 「전계서」, p. 258.

27) 흥은혜, 「바다사랑 36년」(제해36호 별쇄), p. 8.

이들은 대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들을 돌볼 준비를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 기독교는 전쟁이 우리 민족의 죄라고 자각하고 특히 일제하에서의 신사참배 문제와 교회분열의 죄를 회개하는 각성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도자들은 국외로 난민구호소를 호소하였다. 또 신자들은 육군병원으로 달려가 전상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신앙으로 무장하여 다시 조국수호를 위해 戰場에 나갈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하게 하였다.<sup>28)</sup>

이때에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군대내에 군목제도를 설치할 것을 명령하였다.<sup>29)</sup> 이는 신앙이 군인들의 정신무장이 될 수 있음을 보고 군대내에 군목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미국 극동군 사령부 군종부장 Ivan. L. Bennet이 1950년 8월 27일 대구 주둔 미 8군 사령부 군종실에서 예하부대 참모들과 회의하는 중에 한국군에도 군종제도를 설치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감리교의 미국선교사 Show박사, G.A. Carol신부, 그리고 한경직, 유형기 목사등과 함께 국방장관, 국무총리, 이승만 대통령과 끊임없는 협의를 거친 후 종군하는 군목의 생활비는 교회가 담당한다는 조건으로 종군을 허락받게 되었다.<sup>30)</sup> 마침내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 비서실 지시 국방신 제29호로 “종군목사가 있다면 하루속히 사람을 택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라”고 허락되었다. 1951년 2월 10일 육군본부 인사처 내 군종과를 설치하고 군목으로서 일반장교로 종군하고 있던 김득삼 대위를 초대 군목과장으로 임명 하였다. 한국군의 군종역사는

28) 김기태, 「전계서」, p.260.

29)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10년사」(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교교육부, 1956), p.137.

30) 김홍태, 「군신자화 운동이 군전력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 감리교 신학대학원, 1985), p.13.

1951년 2월 28일 기독교와 천주교 32명의 군종장교를 임명하면서 비롯된다(목사와 신부가 무보수 촉탁의 신분으로 군종업무 정식발족). 불교는 지난 68년 월남전 때 軍僧을 파견하면서 군포교가 시작됐다. 1년 3개월만의 무보수 촉탁시대는 종식되고 국인명 제58호로 문관신분으로 인정받아 유급 군목으로 일하게 되었다. 군부대 신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sup>31)</sup>

<표 2-1>

군부대 신자 현황

(1951)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계
신자수	28,652명	5,694명	5,065명	8,908명	6,842명	55,151명

자료 : 육군군종사, 1975.

당시는 대부분 천막교회였으며, 미군목교법을 번역하여 한국 군목교법으로 사용했고, 軍牧敎材도 발간되었다.<sup>32)</sup> 1954년 1월 12일부로 육본일반명령 제9호에 의거 軍宗監室이 설치되고 초대 군종감에 김형도 목사가 임명되었다. 이때까지 군목은 8차에 걸쳐 360여명이 종군했으나 104명이 예편하고, 121명은 任官이 보류되었으며 135명만 중위에서 대령까지 임관되었다. 1954년 12월 13일 육본광장에서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장군에게 임관신고를 함으로서 現役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sup>33)</sup>

1955년 1월 14일 교육각서 제9호 육군 전장병에게 인격지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군목은 인격지도 교육의 교관이 되게 하였다. 1962년 9월에 인격지도 교법이 발간되었으며 G. P.의 대북방송을 통해 굳게 닫

31) 육군본부, 「육군군종사」(서울 : 육군인쇄공장, 1975), p. 42.

32) 김기태, 「전계서」, p. 262.

33) 김홍태, 「전계서」, p. 13.

한 복음의 빙토에 북한 선교의 복음의 소리는 전파되기 시작했다.<sup>34)</sup>

1965년 2월 9일 월남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병부대인 비둘기 부대가 파견됨에 따라 불교의 軍僧포교가 시작되었다. 1968년 8월 17일에 국방부 일반명령 제34호로 불교의 승관요원들이 최초로 종군요원으로 5명을 임관함으로써 군목의 호칭이 “군종장교(Chaplain)”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받아 군종병과의 업무지침으로 오늘까지 내려왔다.<sup>35)</sup> 1983년 4월부터 각급 부대 독립참모부로 운영되던 군종참모부가 군전체의 기구 축소 작업의 일환으로 인사처내 군종과로 격하됨으로써 업무수행의 제한을 받게되었다.<sup>36)</sup> 1988년 7월 1일부로 다시 군종참모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軍宗教育

### 1) 軍宗教育의 意義

군종교육은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군종장교에 의한 선교교육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앙생활과 정신전력 강화라는 군사적 목적의 달성을 있다. 그러나 군종교육의 의미는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닌 보다 폭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군종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병들은 제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해 오다가 군에 들어온 장병들이기에 그들의 경험적 요소가 전

---

34) 김기태, 「전계서」, p.265.

35) 김기태, 「상계서」, p.249.

36) 「상계서」, p.267.

혀 다른 만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동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군대와 같은 집단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이질성이 수용되기 어려운 사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구가 강제적인 획일성을 뜻한다거나 무개성, 비자주적인 수동적 인간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통솔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사회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Montgomery장군의 지휘원칙을 참고해 보자.

“지휘관은 부하들로 하여금 지휘관의 뜻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도 즐겨 따르도록 해야 한다”<sup>37)</sup> 군종교육이 직접 지휘가 아닌, 지휘의 보조수단이라 할지라도 교육목적은 지휘관의 부대지휘에 장병들이 즐겨서 따르도록, 심성적, 도덕적 바탕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군종교육은 장병들로 하여금 군이 요청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하되, 그것을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소화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긍정적 체계를 이루어지게 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은 군종교육이 다른 군교육과 그 성격면에서 크게 구분되는 것이라 하겠다.

군종교육의 또 다른 의의는 全人的 教育이라는 점이다. 현대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生活領域, 統合性, 社會性 등에 있다. 이것은 全人教育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sup>38)</sup>

현대교육이 그 목적으로 全人(whole man)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은, 종래 교육의 폐단이 전인적 발달을 기하지 못하고 편협하여 矮小한 전문교육에 치중한데 있었던 것을 是正해 보려는 노력이다.<sup>39)</sup>

37)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육군 원수로서 덩케르트 철수작전을 지휘한 몽고메리(Montgomery)장군의 지휘원칙이었다.

38) 민찬기, 「군의 전인교육활동에 관한 연구」(서울 :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3.

39) 한기연, 「현대교육사조」(서울 : 법문사, 1978), p.312.

또한 군종교육은 “공동체의 인간화 작업”<sup>40)</sup>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이 요구하는 건전한 정신의 함양 및 가치관의 확립은 비단 군대에만 적용되는 덕목이 아니라 인간으로써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장병개개인은 군전체의 일개 구성원일 뿐 아니라 당사자로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군종교육이 장병의 인격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역할인 만큼 군종교육은 훌륭한 민주시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이라는 문제와도 문제와도 직결되는, 장병의 全人的 人間教育은 장병의 정신교육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요약해 보면, 군종교육은 장병들의 신앙지도 및 인격지도 활동을 통해 그들의 각기 다른 가치관에 통일성과 조화를 주고 미완성의 가치관념에 긍정적인 체계를 심어줌으로서 장병들의 정신건강 및 인격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장병들로 하여금 군이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및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sup>41)</sup>

## 2) 軍宗敎育의 目的

군종교육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군종교육을 통해 장병들에게 건전한 신앙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부대지휘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군인정신 함양과 국민된 자질을 갖게 하는데 있다.

둘째는, 장병들의 인격을 육성하여 군이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

40) 육군본부 군종감실편, 「군진신학」(서울 : 군복음화 후원회, 1985), p. 342.

41) 육군종합행정학교편, 「인격지도」(서울 : 육군종합행정학교, 1993), p. 10.

소유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기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sup>42)</sup>

셋째는, 장병들의 종교생활(신앙) 영위를 위한 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군종교육의 세 가지 목적을 분석해 보면, 군종교육이 첫째는, 부대지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우수한 장병을 길러내는 것이며, 둘째, 셋째는 장병 개인적 입장에서 개인적 인격과 신앙생활 도모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적은 필연적으로 부대의 전투력 향상이라는 목적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다.

### 3) 軍宗敎育의 內容

군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人員, 前期戰術, 裝備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이다.<sup>43)</sup> 이 인원은 다른 두 가지 요소에 앞서 군전력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얼마나 우수한 인원을 육성하는가에 의해 군대의 강약이 좌우된다.<sup>44)</sup> 개인이 강함에 있어서 신체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인 것이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신적 측면의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그 강한 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sup>45)</sup> 따라서 사람을 정신교육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군종병과 즉 군종교육의 군내에서의 임무는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정훈병과의 정신교육내용이 군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이라면 군

---

42) 「상계서」, p. 11.

43) 육군본부, 「육군 군종사」(서울 : 육군본부, 1984), P. 20.

44) 박영수, 「한국 군종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원 학위논문, 1986), p. 19.

45) 김기태, 「신앙을 통한 필승의 신념 확인」(전우신문, 1986. 2. 7), p. 7.

종병과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다움을 만드는 것으로 마치 훌륭한 가옥은 먼저 훌륭한 재목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다.<sup>46)</sup> 이러한 군종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병사들은 건전한 사생관을 확립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인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sup>47)</sup> 즉 초월적 세계를 마음속에 갖게되어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군종교육이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투철한 사생관 확립 둘째, 확고한 국가관 확립 셋째,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한다.<sup>48)</sup>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는 교육을 다했다고 볼수가 없다. 진정한 교육이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 서로 도와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종교육의 역할은 교육의 지식전달 부분으로서 종교교육, 인격지도 교육부분으로 본다면, 실제현장에서 병사들과 고락을 나누며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는 기타교육 부분으로서 개별 방문, 위문, 상담등 선도 대민 활동과 자료사 업무 부분이 포함된다. 즉 군종교육은 크게 종교교육, 인격지도 교육, 기타교육으로 분류한다. “군종활동”을 요약해 보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sup>49)</sup>

---

46) 김기태, 「장병들의 정신적 동반자」(전우신문, 1986.2.8),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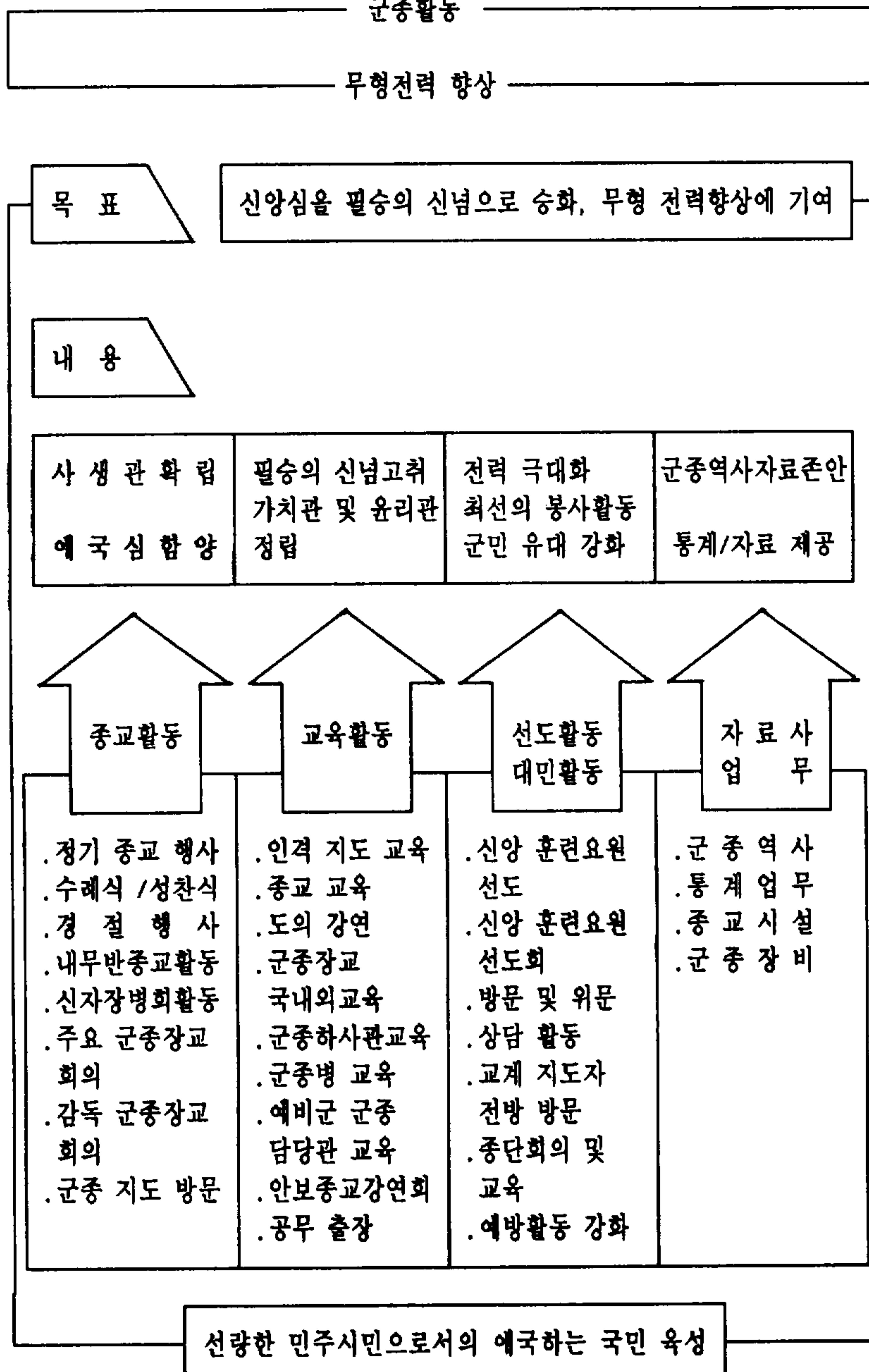
47) 개역 성경, 요한 복음, 12:14.

48) 박영수, 「전계서」, p.22.

49) 육군본부 군종감실, 「군종운영계획」, (서울 : 군종감실, 1992), p.21.

<그림 2-1>

군종활동



자료 : 군종운영계획, 1992.

### (1) 宗教教育

종교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Tillich는 종교를 “窮極的 關心이며 인간의 가장 根本的이요 궁극적인 價值”라고 했다.<sup>50)</sup>

또한 “종교는 문화의 정수이며 문화는 종교의 표현”<sup>51)</sup>이라 한다. “종교는 결국 인간 정신생활의 總量이요, 인간생활의 모든 것의 조합이 종교경험이고, 학문도 도덕심도 기타 일체의 마음이 모여서 종교심을 혼성케 한다”<sup>52)</sup>고 정의했다. 어쨌든 종교는 인간이 잃어버린 신을 되찾고 알고자 노력하며 그 신과의 再結束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참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sup>53)</sup>

인간 삶의 형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종교는 軍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군은 장병들에게 종교적 신앙에 따른 종교양식 및 종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인격향상과 사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힘있고 활동적인 종교는 군인들의 인격향상을 위하여 최상의 이념과 심오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sup>54)</sup>

개개장병은 종교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관, 국가관, 가치관 등을 확고하게 갖출 수가 있게 되고, 이는 개개장병들의 인격형성에 있어서

---

50) 고용수, 「군선교교육론」, *군진신학* (서울 : 군복음화후원회, 1985), p. 356.

51) Allport G. W.,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Y. : Macmillan Comp., 1950), p. 142.

52) 1964년 Allport, Gillespie, Young등의 학자들이 하버드 대학생 414명과 래드클리프 대학생 86명을 상대로 종교생활을 조사했는데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당신은 성숙한 인생철학을 가지기 위해 종교적 지도나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The Journal of Psychology*, 1968), pp. 3-35.

53) 박영수, 「한국 군종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28.

54)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 (서울 : 육군본부, 1981), p. 106.

도 긍정적인 현상이며, 군정신전력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현재의 삶을 보다 보람있고 알차게 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종교교육은 각 종교의 고유한 신앙교육을 말하며, 해당 신자 장병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가족은 물론 부대 인근지역의 민간인까지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교육은 일차적으로 장병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하고, 신앙에 의한 장병들의 현실적 고뇌를 덜어주는 한편, 그들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종교교육 활동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이다. 기독교의 예배, 천주교의 미사, 불교의 법회가 그 한 형태들이며, 이들 종파별의식은 군종장교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 신자 장병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학자 Westerhoff는 말하기를 “만일 예배가 크리스천의 삶의 초점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기독교 교육의 초점도 되어야 한다.”<sup>55)</sup>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군종장교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장병들의 인격에 영향을 주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다.<sup>56)</sup>

첫째, 종교의식은 장병들의 인생관 및 死生觀 확립을 위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종교의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

55) 양영배, 「군종편람」(서울 : 국방부 군종담당관실, 1970), p. 33.

56) 고용수, 「군선교교육론」, 군진신학, (서울 : 군복음화후원회, 1985), p. 358.

셋째, 예배, 기도회 등 종교의식은 고통과 시련의 이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넷째, 종교의식을 통해 용감성과 담대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의식을 통해 장병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기독교의 세례, 천주교의 영세, 불교의 수계 등이 있고, 국가적, 종교적 축일에 특별 종교행사가 있으며, 각 종파에 따른 결혼예식과 장례예식, 종교 강연회 및 수련회, 부흥회 등이 있다.<sup>57)</sup>

좀 더 세분하여 군종교교육의 종교교육 종류를 보면,

첫째, 정기종교교육은 신자사병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종교집회를 통해 신앙을 지도하고 교리공부를 실시한다.

둘째, 진중예배는 군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군종장교는 요일 및 장소 개념없이 교회나 법당에서만이 아닌 병사들의 내무반에서 혹은 전방 GOP나 해안초소, 격오지 부대, 영창, 교도소 등에서 종교 활동을 시행한다. 이는 종교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까지 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거나 특수 임무상 자리를 비울수 없을 때 군종장교가 찾아가서 종교의식을 집행한다.<sup>58)</sup>

셋째, 정기집회는 매주 일요일에 장사병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넷째, 군인가족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지도교육으로, 최근에는 성경공부, 금요일 구역예배, 심방 등 목회업무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다섯째, 주일학교 및 계절학교는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

---

57)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재」(서울 : 보이스사, 1985), p. 268.

58) 「상계서」, p. 269.

으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운영하며, 여름성경학교 등이 부대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신앙모임지도는 부대내 신자들로 구성된 각종 단체에 대한 신앙지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기독전우회, 여전도회, 신우회, 찬양단 등 의 많은 조직체가 있고 그들에 대한 지도는 군종장교에 의해 수시로 행해지고 있다.

## (2) 人格指導教育

### ① 人格指導教育의 意義

군대가 특수한 성격을 지닌 만큼 그 구성원의 가치관도 군대의 가치관에 상응하고 조화되도록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군 인격지도 교육은 장병들의 각기 다른 가치관에 조화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미완성의 가치관념에 대해서는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서 그들의 인격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성숙시켜 나갈 것을 의도하게 된다.<sup>59)</sup>

이러한 인격지도 과정을 거쳐 군은 군이 요구하는 적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각 병사들이 소유케하여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기제공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정립은 비단 군대라는 집단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것은 아니다.

근간 신문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둉소평은 군대를 민간인과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시켜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거대한 학교'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

---

59)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학 I」(서울 : 제6지구 인쇄소, 1993), p.230.

는 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420만 인민군에게 정치학과 군사학 및 군사기술 등은 물론 수학, 물리, 화학, 농공업과 함께 어학공부까지 하게 하여 각 지역에서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군대를 하나의 큰 학교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인격지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군대가 하나의 국민교육의 도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국군의 인격지도 교육의 의의와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이다.

군대에서 인격지도 교육을 통해 확립된 가치관이 비단 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출한 후에도 장병 스스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인 덕목이라고 할 때 인격지도 교육이야 말로 장병들에 대한 전인교육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대는 ‘국민의 정신교육의 도장’이기도 한 것이다.<sup>60)</sup>

결론적으로 인격지도 교육의 의의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정신적 덕목을 함양하려는 것인 만큼, 애국장병을 육성해 간다는 의미와 함께 전인적 인간교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인격지도 교육을 통해서 장병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또 군인으로서 가치관을 정립하여 애국장병으로 육성되는 일은 인격지도 교육의 최종목표인 정신전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sup>61)</sup>

정신전력과 인격지도 교육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sup>62)</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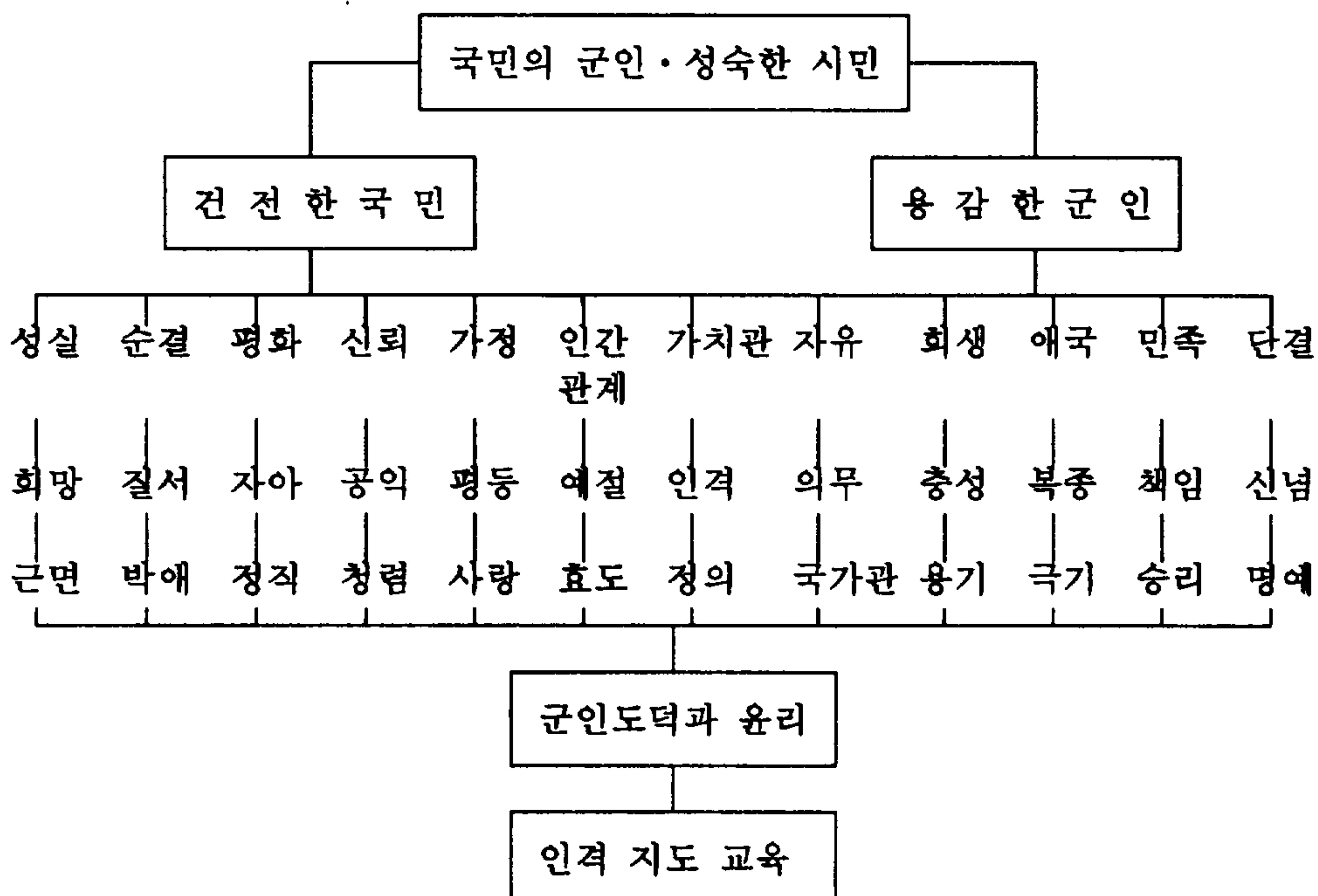
60) 육군종합행정학교, 「전계서」, p. 15.

61) 육군종합행정학교, 「전계서」, p. 14.

62) 박상칠, 「정신전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투입효과 연구」(원광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5.

&lt;그림 2-2&gt;

정신전력과 인격지도 교육 관계



## ② 人格指導敎育의 歷史

인격지도 교육이 처음으로 제창되고 실시된 곳은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군대제도를 도입하면서 군종제도와 함께 인격지도 교육과 같은 장병교육의 방법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실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인격지도 교육의 모델이 된 미국의 인격지도 교육의 역사적 변천 경로와 특징을 살펴보자.

## ⓐ 미국군의 인격지도 교육의 경과

미국군의 인격지도 교육의 역사는 약 2백년이나 된다. 물론 당시의 인격지도 교육이 오늘날과는 다르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첫째, 독립전쟁 및 남북전쟁 시기의 인격지도 교육.

독립전쟁 (1775-1783) 당시의 미군의 첫 사령관 George Washington은 미국 군대에 있어 최초의 인격지도 교육의 제창자라고 할 수 있다.<sup>63)</sup>

워싱턴 장군은 무질서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장병들에게 독립전쟁의 목적과 그들이 품고 있는 회의를 풀어주면서 無의 전투력증강과 애국심을 북돋아 최후의 승리를 획득케 했다. 물론 그 당시 인격지도 교육이라는 교육 명칭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예하 장병들에게 유익한 도덕적 영향을 줄 것을 그의 참모장교들에게 일반명령으로 하달 하므로써 이러한 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예해방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남북전쟁시기(1861-1865)에는 전쟁의 성격상 장병의 도덕적인 면이 특히 강조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중대되었다.<sup>64)</sup> 그리하여 북군의 오커스트, 워리드 대령 같은 지휘관은 전쟁의 원인, 노예제도의 불합리성, 미국 자유정부의 성격과 같은 문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토론단의 제도를 조직하는 등 장병의 정신교육에 힘썼다.<sup>65)</sup>

이러한 장병교육의 임무가 일부 종군목사들에 맡겨졌음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 남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주로 종교적 관심을 기울여 신앙을 통한 장병교육에 역점을 두었다.<sup>66)</sup>

### 둘째, 제1차 세계대전시기와 그 이후

제1차 세계대전 (1914-1919)의 발발은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 시기에 미국 군대의 인격지도 교육에 관한 일은 주로 YMCA 또는 구세군과 같은 민간종교단체에 의해 실시되었다.<sup>67)</sup>

63) R. G. Hutcheson, 박상칠 역, 「전계서」, p. 202.

64) 육군종합행정학교, 「전계서」, p. 214.

65) 「상계서」, p. 214.

66) R. G. Hutchson, 박상칠 역, 「전계서」, p. 206.

67) 「상계서」, p. 206.

제2차 세계대전 (1939-1945)을 전후한 시기에 장병교육은 완전히 군 자체에서 실시되었다.

- ① 1940년 7월: 군이 전쟁을 예상하고 병력을 확충할 때, 부관감실에 군사기과를 창설.
- ② 1941년 3월: 사기과가 사기국으로 개편되면서 육군성의 특별참모가 됨.
- ③ 1942년 2월: 사기국이 다시 정병국으로 개명되어 오락과 교육, 두 분야를 담당하게 됨.
- ④ 1943년 3월: 정병국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 오락을 포함한 체육은 정병국에서 담당하고, 군 뉴스 및 정신강화와 과외교육활동 등은 신설된 정훈과에서 담당함.
- ⑤ 1948년 8월: 장병의 인격지도훈련계획에 군목의 특별교육이 포함 실시되었고 인격훈련계획이 정식으로 육군성에 의해 “인격지도”로 규정되었으며, 예하 대대에 이르기까지 인격지도자문위원회가 수립됨.
- ⑥ 1948년 이후: 인격훈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군종 감실에서는 이에 관한 책자를 계속 발행하였다.

#### ④ 韓國의 人格指導敎育 經過

한국의 경우 군종병과 창설이래 군의 정신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군종감실에서는 인격지도 교육에 큰 역점을 두어왔다. 오늘날의 인격지도 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왔다.

- ① 1951년 2월 7일: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 설치 병과 창설 ('54년 7월 12일 병과 독립)
- ② 1955년 1월: 육군본부 교육각서 제 9조에 의해 전 장병들에게 인격지도 교육을 실시하게 됨. 이에 따라 군종장교는 인격지도 교육 교관의 책임을 맡게 됨.
- ③ 1955년 10월: 군종업무에 대한 제반 규정이 육규 10-2로 제공 포되어 군종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적 근거가 수립됨에 따라 인격지도 과목이 정식 규정화 됨.
- ④ 1956년 2월: “군목교육” 팜프렛 및 인격지도 지침등의 간행물을 발간함.
- ⑤ 1963년 6월: 인격지도 교법을 팜프렛 16-100으로 제정 발행하여 전 부대에 배포함.
- ⑥ 1964년 6월: 군종업무 규정을 수정 통합하여 육규 165-1발간 제4장에 인격지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
- ⑦ 1974년 6월: 육군업무 규정의 재 수정으로 육규 1-25발간 제2항 3, 4조에 인격지도에 관한 사항을 둠.
- ⑧ 1976년 6월: 육군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인격지도 과목이 육군정규 과목에 포함되어 1977년부터 연간 8시간을 정신교육의 날 (수요일 오전)에 시행하게 됨.
- ⑨ 1978년 1월: 정규시간에 군종장교의 손이 전 장병에 미칠 수 없게 됨에 따라 '78년부터는 자질있는 중·소대장을 인격지도교관으로 활용하게 됨. 한편 팜프렛 165-17로 발행하던 인격지도 교재를 전면 개편, 교육참고 16-100-1, 2, 3 인격지도로 발간하여 이 1-3집을 연차 별 순환기본 교재로 사용토록 하고, 해마다 그 내용을 수정, 보충해 나감.
- ⑩ 1981년: 육군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연간 8시간으로 실시해 오던 인격지도 교육을 분기 1회로 개정하였다.

### ③ 人格指導教育의 内容

인격지도 교육은 불변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장병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격지도 교육의 내용을 교육중점과 교육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 教育중점 사항

인격지도 교육 중점 사항은 1990년에 접어들면서 내용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참고로 군종병과 인격지도 교육 1986년부터 1989년까지, 1990년 이후의 교육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68)</sup>

<표 2-2>

인격지도 교육 중점

시 대	1986년 - 1989년	1990년 이후
교육중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선진조국 창조의 배양</li><li>멸공의식 고취</li><li>가치관 확립</li><li>민주의식 쇄신</li></ol>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념무장 강화</li><li>국가관 확립</li><li>가치관 확립</li><li>민주시민의식 함양</li><li>좌경사상 척결</li></ol>

자료 : 군종 및 인격지도, 1991.

위에서 본 것과 같이 90년에 들어와서 교육중점이 이처럼 바뀌게 된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회문제의 변화와 국민의식 성향의 변화 때문이다.

#### ⓑ 教育주제

여기에서 제시되는 교육주제는 매달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이다.

1988년까지의 인격지도 교육은 3년을 주기로 총 36개의 제목이 주어

68) 육군본부, 「전계서」, p.99.

져 3년 주기의 반복교육을 실시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도덕과 윤리적 의무를 위주로 구성 되었다. 그러나 90년 이후의 인격지도 교육의 주제는 여러가지 변화를 나타내 보였다.

참고로 1990년<sup>69)</sup>, 1991년<sup>70)</sup> 인격지도 교육의 주제를 살펴 보았다.

<표 2-3> 1990, 1991년 인격지도 교육 주제

월 별	1990년	1991년
1	인간의 자아발견	희망, 미래를 현재에 사는 법
2	인간과 책임	하나되는 것과 하나되게 하는 것
3	국가와 군인	근면한 삶
4	군인과 신앙	서로 믿고 사는 사회
5	국민윤리와 종교의 역할	군대가정 운동
6	올바른 신앙	신성한 의무
7	이데올로기(ideology)와 종교	성실한 인간
8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	청년의 정의 실현
9	정신전력과 국력	군인과 질서
10	군인과 충효	인격적인 존재
11	올바른 가치관 확립	이념과 진실
12	전통사상의 이해	평화공존의 길

자료 : 인격지도 13권·1989, 인격지도 14권·1990.

1990년, 1991년 인격지도 교육의 월별주제를 살펴보면 이전의 사상무장교육이나 이념교육의 틀을 벗어나 가치지향적 부분이나 개인의 대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인격지도 교육의 방향이 이전의 경직성을 벗어나 현실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사병들의 정신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69) 육군본부 군종감실, 「인격지도 13」(서울 : 육군인쇄공창, 1989), p. 7.

70) 육군본부 군종감실, 「인격지도 14」(서울 : 육군인쇄공창, 1990), p. 7.

### (3) 其他教育

위에서 본 논문은 군종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종교교육과 장사병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심을 갖는 인격지도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두가지 교육은 군종장교 고유의 교육부분으로서 이것이 군종장교의 교육활동에 갖는 비중은 지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군종교육활동을 보충해 주는 기타 여러 교육활동이 있다.<sup>71)</sup>

#### ① 군종장교 집체교육

군종장교 집체교육이란 군종장교를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서 교육의 대상은 군종장교들이며 집체교육, 종단교육 등의 형식으로 실행된다.<sup>72)</sup>

#### ② 군종사병 교육

이것은 일종의 주특기 교육으로서 군종병과 공통업무 수행교육에 역점을 두고 연대, 여단 및 사단 단위로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

#### ③ 도의 강연

장병들의 국가관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저명한 종교지도자를 초청하여 전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sup>73)</sup>

#### ④ 예비군 정신교육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의 정신교육으로서 예비군 군종 담당관이 교관이 되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71) 육군종합 행정학교, 「군종학(II)」(서울 : 제6지구 인쇄소, 1989), p.103.

72)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서울 : 육군인쇄공창, 1981), p.36.

73) R. G. Hutcheson, 박상칠 역, 「전계서」, p.229.

## ⑤ 전역, 전입교육

전역 교육이란 전역을 앞둔 장, 사병을 위한 교육으로서 의무 복무에 대한 치하와 전역 후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가치관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전입교육은 전입 장,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원활한 복무적응과 군생활에 대한 이상을 심어주는 교육이다.

### III. 結果分析 및 解釋

본 장은 장병 인격지도 교육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설문 자료처리는 각 문항별의 빈도수 측정과 변인간의 유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Chi-Square( $\chi^2$ )통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 1. 人格指導教育의 精神戰力 寄與度 檢證

##### (1) 정신전력 기여도

<표 3-1>

정신전력 기여도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절대로 기여한다	상당히 기여한다	약간 기여한다	기여하지 못한다	계
학 력	고졸	22(7.33)	52(17.33)	62(20.67)	10(3.33)	146(48.67)
	전문대졸	4(1.33)	10(3.33)	12(4.00)	1(0.33)	27(9.00)
	대학재	15(5.00)	37(12.33)	43(14.33)	6(2.00)	101(33.67)
	대학졸이상	9(3.00)	10(3.33)	6(2.00)	1(0.33)	26(8.67)
계		50(16.67)	109(36.33)	123(41.00)	18(6.00)	300(100.00)
$\chi^2 = 7.687$ df = 9      p > 0.05						
종 교	기독교	24(8.00)	50(16.67)	46(15.33)	3(1.00)	123(41.00)
	천주교	4(1.33)	12(4.00)	9(3.00)	3(1.00)	28(9.33)
	불교	12(4.00)	23(7.67)	21(7.00)	3(1.00)	59(19.67)
	기타종교	1(0.33)	0(0.00)	0(0.00)	0(0.00)	1(0.33)
	무종교	9(3.00)	24(8.00)	47(15.67)	9(3.00)	89(29.67)
계		50(16.67)	109(36.33)	123(41.00)	18(6.00)	300(100.00)
$\chi^2 = 21.313$ df = 12      p < 0.05						
계 급	이상병	0(0.00)	11(3.67)	5(1.67)	0(0.00)	16(5.33)
	일병	17(5.67)	41(13.67)	50(16.67)	6(2.00)	114(38.00)
	병장	15(5.00)	23(7.67)	26(8.67)	6(2.00)	70(23.33)
	병장	6(2.00)	12(4.00)	36(12.00)	5(1.67)	59(19.67)
	교장	12(4.00)	22(7.33)	6(2.00)	1(0.33)	41(13.67)
계		50(16.67)	109(36.33)	123(41.00)	18(6.00)	300(100.00)
$\chi^2 = 42.656$ df = 12      P < 0.001						

<표 3-1>은 정신전력 기여도 차이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교와 계급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21.313과 42.656으로 이들은 p=0.05수준과 p=0.001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026과 32.9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력차간에는  $\chi^2$ 의 값이 7.687로 이는 p=0.05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이 정신전력에 절대로 기여한다가 50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상당히 기여한다가 109명으로 36%, 약간 기여한다가 123명으로 41%이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이 정신전력에 기여한다는 수치는 94%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졸자에게서 높은 반응(24%)을 보였다.

종교의 차이에 따라 ‘절대로·상당히 기여한다’에 기독교는 74명의 60%, 천주교 16명의 57%, 불교 35명의 59%로 나타났으며, 무종교는 33명의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종교를 가진 자가 종교를 갖지 않은 자보다 인격지도 교육의 정신전력 기여도 수치가 높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별로 볼 때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신전력을 기독교, 천주교, 불교순으로 적극적 전개한 결과의 반응으로 이해된다.

계급 간에는 ‘절대로, 상당히 기여한다’가 이병은 11명의 69%, 일병은 58명의 51%, 상병은 38명의 54%, 병장은 18명의 31%로 나타났으며, 장교는 34명으로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이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병때 정신적 군기가 확실히 잡힌 시기로 해석된다.

## (2) 인격지도 교육의 부대단결에의 기여도

<표 3-2>

부대단결 기여도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 문항		절대로 기여한다	상당히 기여한다	약간 기여한다	기여하지 못한다	계
학 력	고졸	17(5.67)	57(19.00)	61(20.33)	11(3.67)	146(48.67)
	전문대졸	5(1.67)	8(2.67)	11(3.67)	3(1.00)	27(9.00)
	대학재	14(4.67)	33(11.00)	47(15.67)	7(2.33)	101(33.67)
	대학졸이상	9(3.00)	13(4.33)	3(1.00)	1(0.33)	26(8.67)
계		45(15.00)	111(37.00)	122(40.67)	22(7.33)	300(100.00)
$\chi^2 = 17.982$ df = 9      p < 0.05						
종교	기독교	21(7.00)	53(17.67)	44(14.67)	5(1.67)	123(41.00)
	천주교	4(1.33)	11(3.67)	9(3.00)	4(1.33)	28(9.33)
	불교	10(3.33)	22(7.33)	24(8.00)	3(1.00)	59(19.67)
	기타종교	0(0.00)	1(0.33)	0(0.00)	0(0.00)	1(0.33)
계		45(15.00)	111(37.00)	122(40.67)	22(7.33)	300(100.00)
$\chi^2 = 16.193$ df = 12      p > 0.05						
계급	이상병	0(0.00)	8(2.67)	8(2.67)	0(0.00)	16(5.33)
	일병	17(5.67)	37(12.33)	50(16.67)	10(3.33)	114(38.00)
	병장	14(4.67)	25(8.33)	24(8.00)	7(2.33)	70(23.33)
	장교	4(1.33)	16(5.33)	34(11.33)	5(1.67)	59(19.67)
계		45(15.00)	111(37.00)	122(40.67)	22(7.33)	300(100.00)
$\chi^2 = 43.096$ df = 12      p < 0.001						

위 <표 3-2>는 부대단결 기여도 차이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계급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17.982와 43.096으로 이들은  $p=0.05$ 수준과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와 32.9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종교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16.193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02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이 부대단결에 절대로 기여한다고 45명으로 15%, 상당히 기여한다고 111명으로 37%, 약간 기여한다고 122명으로 41%, 기여하지 못한다고 22명으로 7%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대단결에 기여한다는 총 93%였다.

학력의 차이에 따라 '절대로, 상당히, 약간 기여한다'에 고졸이 135명

으로 92%, 전문대출이 24명으로 89%, 대재가 94명으로 93%, 대졸이상이 25명으로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인격지도 교육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의 반응으로 이해된다.

제급 간에는 ‘약간 기여한다’ 이상은 이병이 16명으로 100%, 간부가 41명으로 100%로 나타났다. 이병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그들이 인격지도 교육 내용을 잘 실천하여 부대단결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장교가 100%부대단결 기여도에 반응하였는데 인격지도 교육을 통해 부대단결에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인격지도 교육은 부대단결에 대단히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3) 인격지도 교육의 부대발전과 사기진작에의 기여도

<표 3-3> 부대발전과 사기진작 기여도 검증 (%) : %

문항 배경변인		절대로 기여한다	상당히 기여한다	약간 기여한다	기여하지 못한다	계
학 력	고 졸	19(6.35)	54(18.06)	66(22.07)	6(2.01)	145(48.49)
	전문대출	4(1.34)	10(3.34)	11(3.68)	2(0.67)	27(9.03)
	대 재	10(3.34)	37(12.37)	49(16.39)	5(1.67)	101(33.78)
	대출이상	6(2.01)	12(4.01)	7(2.34)	1(0.33)	26(8.70)
	제	39(13.04)	113(37.79)	133(44.48)	14(4.68)	299(100.00)
$\chi^2 = 6.125$ df = 9 P > 0.05						
종 교	기독교	25(8.36)	51(17.06)	40(13.38)	6(2.01)	122(40.80)
	천주교	2(0.67)	10(3.34)	15(5.02)	1(0.33)	28(9.36)
	불교	7(2.34)	24(8.03)	28(9.36)	0(0.00)	59(19.73)
	기타종교	0(0.00)	1(0.33)	0(0.00)	0(0.00)	1(0.33)
	무종교	5(1.67)	27(9.03)	50(16.72)	7(2.34)	89(29.77)
	제	39(13.04)	113(37.79)	133(44.48)	14(4.68)	299(100.00)
$\chi^2 = 28.655$ df = 12 p < 0.01						
계 급	이병	2(0.67)	8(2.68)	6(2.01)	0(0.00)	16(5.35)
	일병	19(6.35)	27(12.37)	53(17.73)	5(1.67)	114(38.13)
	상병	6(2.01)	30(10.03)	29(9.70)	4(1.34)	69(23.08)
	장병	4(1.34)	12(4.01)	38(12.71)	5(1.67)	59(19.73)
	장교	8(2.68)	26(8.70)	7(2.34)	0(0.00)	41(13.71)
	제	39(13.04)	73(37.79)	133(44.48)	14(4.68)	299(100.00)
$\chi^2 = 40.213$ df = 12 p < 0.001						

<표 3-3>은 부대발전과 사기진작 기여도 차이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교와 계급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28.655와 40.213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p=0.01$ 수준과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6.217과 32.9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력차 간에는  $\chi^2$ 의 값은 6.12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은 부대발전과 사기진작에 절대로 기여한다가 39명으로 13%, 상당히 기여한다가 113명으로 38%, 약간 기여한다가 133명으로 44%가 나타났다. 따라서 95%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여하지 못한다는 5%였다.

종교의 차이에 따라 ‘절대로, 상당히 기여한다’는 기독교는 76명으로 62%의 가장 높은 반응이 나타났으며, 불교 31명의 53%, 천주교 12명의 43%, 그리고 무종교 32명의 36%의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 여기서 무종교보다 종교를 가진 자가 부대발전과 사기진작 기여도에 수치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앙이 명랑한 병영생활조성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병사계급에 따라 ‘절대로, 상당히 기여한다’에 이병이 10명의 63%로 가장 높게, 병장이 16명의 27%로 가장 낮은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장교들은 34명의 83%로 병사보다 훨씬 높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4) 인격지도 교육은 전전한 가치관 형성에의 기여도

<표 3-4>

가치관 형성 기여도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절대로 영향을 준다	상당히 영향을 준다	약간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
학 력	고 졸	20(6.67)	56(18.67)	61(20.33)	9(3.00)	146(48.67)
	전문대졸	5(1.67)	7(2.33)	14(4.67)	1(0.33)	27(9.00)
	대 재	14(4.67)	39(13.00)	43(14.33)	5(1.67)	101(33.67)
	대학 이상	9(3.00)	13(4.33)	3(1.00)	1(0.33)	26(8.67)
	계	48(16.00)	115(38.33)	121(40.33)	16(5.33)	300(100.00)
$\chi^2 = 16.147$ df = 9      p > 0.05						
종 교	기독교	23(7.67)	54(18.00)	39(13.00)	7(2.33)	123(41.00)
	천주교	7(2.33)	6(2.00)	12(4.00)	3(1.00)	28(9.33)
	불교	8(2.67)	26(8.67)	24(8.00)	1(0.33)	59(19.67)
	기타종교	0(0.00)	0(0.00)	1(0.33)	0(0.00)	1(0.33)
	무종교	10(3.33)	29(9.67)	45(15.00)	5(1.67)	89(29.67)
	계	48(16.00)	115(38.33)	121(40.33)	16(5.33)	300(100.00)
$\chi^2 = 17.773$ df = 12      p > 0.05						
계 급	이 병	0(0.00)	8(2.67)	7(2.33)	1(0.33)	16(5.33)
	일 병	21(7.00)	33(11.00)	52(17.33)	8(2.67)	114(38.00)
	상 병	14(4.67)	27(9.00)	26(8.67)	3(1.00)	70(23.33)
	병 장	4(1.33)	21(7.00)	30(10.00)	4(1.33)	59(19.67)
	장 교	9(3.00)	26(8.67)	6(2.00)	0(0.00)	41(13.67)
	계	48(16.00)	115(38.33)	121(40.33)	16(5.33)	300(100.00)
$\chi^2 = 36.798$ df = 12      p < 0.001						

위 <표 3-4>는 가치관 기여도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종교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16.147과 17.773으로 이들은 모두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와 21.026보다 작은 수치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급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36.798로 이것은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32.9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이 가치관 기여도에 절대로 영향을 준다에 48명의 16%, 상당히 영향을 준다에 115명의 38%, 약간 영향을 준다에 121명의 40%, 영향을 주지 못한다에 16명의 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이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에 94%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것은 군종장교가 하는 인격지도 교육이 병사들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사 계급 간에는 이병이 15명의 94%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적인 면에서 장교가 41명으로 100%의 최고의 수치를 나타냈다.

#### (5) 인격지도 교육의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 기여도

<표 3-5>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 기여도 검증 (%) : %

배경변인 \ 문항		절대로 기여한다	상당히 기여한다	약간 기여한다	기여하지 못한다	계
학 력	고졸	19(6.35)	54(18.06)	61(20.40)	12(4.01)	146(48.83)
	전문대졸	4(1.34)	10(3.34)	12(4.01)	1(0.33)	27(9.03)
	대학재	16(5.35)	36(12.04)	40(13.38)	8(2.68)	100(33.44)
	대학졸이상	6(2.01)	11(3.68)	7(2.34)	2(0.67)	26(8.70)
	계	45(15.05)	111(37.12)	120(40.13)	23(7.69)	299(100.00)
$\chi^2 = 3.907$ df = 9   p = 0.917						
종 교	기독교	23(7.69)	48(16.05)	43(14.38)	8(2.68)	122(40.80)
	천주교	3(1.00)	11(3.68)	14(4.68)	0(0.00)	28(9.36)
	불교	9(3.01)	24(8.03)	20(6.69)	6(2.01)	59(19.73)
	기타종교	0(0.00)	1(0.33)	0(0.00)	0(0.00)	1(0.33)
	무종교	10(3.34)	27(9.03)	43(14.38)	9(3.01)	89(29.77)
	계	45(15.05)	111(37.12)	120(40.13)	23(7.69)	299(100.00)
$\chi^2 = 14.916$ df = 12   p = 0.246						
계 급	이상병	1(0.33)	5(1.67)	10(3.34)	0(0.00)	16(5.35)
	병병	18(6.02)	39(13.04)	45(15.05)	12(4.01)	114(38.13)
	병장	12(4.01)	26(8.70)	26(8.70)	5(1.67)	69(23.08)
	장교	5(1.67)	17(5.69)	31(10.37)	6(2.01)	59(19.73)
	계	45(15.05)	111(37.12)	120(40.13)	23(7.69)	299(100.00)
$\chi^2 = 29.943$ df = 12   p < 0.01						

위 <표 3-5>는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 기여도 검증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종교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3.907과 14.916으로 이들은 모두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과 21.026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급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29.943 이것은  $P=0.001$ 수준에서 요

구되는  $\chi^2$ 의 값 21.02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이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에 절대로 기여한다가 45명으로 15%, 상당히 기여한다가 111명으로 37%, 약간 기여한다가 120명으로 40%, 기여하지 못한다가 23명으로 8%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이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에 기여한다는 수치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계급 간에는 '절대로, 상당히, 약간 기여한다'가 이병과 장교는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병은 102명으로 89%, 상병은 64명의 93%, 병장은 53명의 90%로 나타났다.

#### (6) 인격지도 교육의 부대생활의 기여 여부

<표 3-6> 긍정적인 부대생활 기여 여부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절대로 영향을 준다	상당히 영향을 준다	약간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계
학 력	고졸	17(5.69)	71(23.75)	53(17.73)	5(1.67)	146(48.83)
	전문대졸	6(5.35)	12(4.01)	8(2.68)	1(0.33)	27(9.03)
	대학재	16(5.35)	42(14.05)	38(12.71)	4(1.34)	100(33.44)
	대학졸이상	6(2.01)	10(3.34)	10(3.34)	0(0.00)	26(8.70)
계		45(15.05)	135(45.15)	109(36.45)	10(3.34)	299(100.00)
$\chi^2 = 6.256 \quad df = 9 \quad p > 0.05$						
종 교	기독교	21(7.02)	58(19.40)	41(13.71)	2(0.67)	122(40.80)
	천주교	5(1.67)	11(3.68)	11(3.68)	1(0.33)	28(9.36)
	불교	11(3.68)	26(8.70)	20(6.69)	2(0.67)	59(19.73)
	기타종교	0(0.00)	1(0.33)	0(0.00)	0(0.00)	1(0.33)
	무종교	8(2.68)	39(13.04)	37(12.37)	5(1.67)	89(29.77)
계		45(15.05)	135(45.15)	109(36.45)	10(3.34)	299(100.00)
$\chi^2 = 9.041 \quad df = 12 \quad p > 0.01$						
계 급	이상병	2(0.67)	10(3.34)	4(1.34)	0(0.00)	16(5.35)
	일병	19(6.35)	44(14.72)	47(15.72)	4(1.34)	114(38.13)
	병장	12(4.01)	32(10.70)	22(7.36)	3(1.00)	69(23.08)
	장교	4(1.34)	23(7.69)	29(9.70)	3(1.00)	59(19.73)
	계	8(2.68)	26(8.70)	7(2.34)	0(0.00)	41(13.71)
$\chi^2 = 23.542 \quad df = 12 \quad p < 0.05$						

<표 3-6>은 긍정적인 부대생활 차이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종교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6.256과 9.041로 나타나 모두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와 21.026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급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23.542로 이것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02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이 긍정적인 부대생활에 절대로 영향을 준다가 45명의 15%, 상당히 영향을 준다가 135명의 45%, 약간 영향을 준다가 109명의 37%, 영향을 주지 못한다가 10명의 3%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은 긍정적인 부대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97%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계급 간에는 '약간 영향을 준다' 이상이 이병이 16명으로 100%, 일병은 110명으로 96%, 상병은 66명으로 96%, 병장은 56명으로 95%, 장교는 41명으로 100%로 나타났다. 병사는 계급이 낮을수록 수치가 높다. 이것은 신병때 군기가 확실히 잡힌 시기이나 계급이 오를수록 요령이 생겨 적당히 하려는 의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간부는 인격지도 교육이 긍정적인 부대생활에 영향을 준다에 높은 수치로 지지하고 있다.

## 2. 人格指導敎育의 參與度 檢證

### (1) 종교행사 참여횟수

<표 3-7>

종교행사 참석횟수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주2-3회	주1회	월2-3회	월1회	월1회 이상	계
학 력	고 졸	16(5.54)	51(17.65)	16(5.54)	16(5.54)	40(13.84)	139(48.10)
	전문대졸	3(1.04)	11(3.81)	3(1.04)	1(0.35)	9(3.11)	27(9.34)
	대 재	15(5.19)	38(13.15)	9(3.11)	7(2.42)	28(9.69)	97(33.56)
	대출이상	4(1.38)	10(3.46)	3(1.04)	2(0.69)	7(2.42)	26(9.00)
계		38(13.15)	110(38.06)	31(10.73)	26(9.00)	84(29.07)	289(100.00)
$\chi^2 = 3.909$ df = 12      p > 0.05							
종 교	기독교	29(10.03)	62(21.45)	16(5.54)	7(2.42)	7(2.42)	121(41.87)
	천주교	3(1.04)	10(3.46)	5(1.73)	5(1.73)	5(1.73)	28(9.69)
	불교	3(1.04)	22(7.61)	2(0.69)	7(2.42)	22(7.61)	56(19.38)
	기타종교	0(0.00)	1(0.35)	0(0.00)	0(0.00)	0(0.00)	1(0.35)
	무종교	3(1.04)	15(5.19)	8(2.77)	7(2.42)	50(17.30)	83(28.72)
계		38(13.15)	110(38.06)	31(10.73)	26(9.00)	84(29.07)	289(100.00)
$\chi^2 = 105.746$ df = 16      p < 0.001							
계 급	이 일 상 병 장 교	6(2.08) 11(3.81) 11(3.81) 8(2.77) 2(0.69)	7(2.42) 49(16.96) 24(8.30) 10(3.46) 20(6.92)	1(0.35) 13(4.50) 3(1.04) 8(2.77) 6(2.08)	1(0.35) 6(2.08) 8(2.77) 6(2.08) 5(1.73)	1(0.35) 30(10.38) 22(7.61) 25(8.65) 6(2.08)	16(5.54) 109(37.72) 68(23.53) 57(19.72) 39(13.49)
	계	38(13.15)	110(38.06)	31(10.73)	26(9.00)	84(29.07)	289(100.00)
$\chi^2 = 39.035$ df = 16      p < 0.01							

위 <표 3-7>은 종교행사 참석횟수 차이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교와 계급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105.746과 39.035로 이들은  $p=0.001$ 수준과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39.252와 32.00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러나 학력 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3.909로 이는 p=0.05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02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교행사 참석횟수가 주 2-3회가 380명으로 13%, 주 1회가 110명으로 38%, 월 2-3회가 31명으로 11%, 월 1회가 26명으로 9%, 월 1회 이상이 84명으로 29%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1회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월 1회이상, 주 2-3회, 월 2-3회, 월 1회 순으로 밝혀졌다.

종교별의 차이에 따라 주 1회 이상이 기독교가 91명의 75%로 가장 반응이 높았고, 천주교 13명의 46%, 불교 25명의 45%, 무종교 18명의 22%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행사 참석 횟수는 당연히 무종교자보다 종교를 지닌 자들의 참여율이 높다. 종교별로 볼 때 기독교가 가장 수치가 높다. 이는 기독교의 열심도와, 타 종교보다 많은 모임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계급 간에는 주 1회 이상에 이병이 13명으로 81%로 가장 높고, 일병이 60명으로 55%, 상병이 25명으로 51%, 병장이 18명으로 32% 순으로 나타났다. 장교는 22명의 56%의 높은 반응을 하였다. 이것은 이등병 때는 낯선 환경과 어려울 때 종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2) 인격지도 교육 청강 기대회망 횟수

<표 3-8>

인격지도 교육 청강 기대 횟수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월1회가 좋다	월1회 이상이 좋다	분기 1회 이상이 좋다	연간 1회 이상이 좋다	계
학 력	고졸	53(18.03)	32(10.88)	39(13.27)	20( 6.80)	144(48.98)
	전문대졸	6( 2.04)	10( 3.40)	8( 2.72)	2( 0.68)	26( 8.84)
	대학재	39(13.27)	20( 6.80)	27( 9.18)	13( 4.42)	99(33.67)
	대학졸이상	8( 2.72)	8( 2.72)	7( 2.38)	2( 0.68)	25( 8.50)
계		106(36.05)	70(23.81)	81(27.55)	37(12.59)	294(100.00)
$\chi^2 = 6.543 \quad df = 9 \quad p > 0.05$						
종 교	기독교	50(17.01)	34(11.56)	29(9.86)	7(2.38)	120(40.82)
	천주교	11( 3.74)	10( 3.40)	5(1.70)	2(0.68)	28( 9.52)
	불교	20( 6.80)	9( 3.06)	18(6.12)	9(3.06)	56(19.05)
	기타종교	0( 0.00)	1( 0.34)	0(0.00)	0(0.00)	1( 0.34)
	무종교	25( 8.50)	16(5.44)	29(9.86)	19(6.46)	89(30.27)
계		106(36.05)	70(23.81)	81(27.55)	37(12.59)	294(100.00)
$\chi^2 = 25.034 \quad df = 12 \quad p < 0.05$						
계 급	이상병	7(2.38)	7(2.38)	2(0.68)	0(0.00)	16(5.44)
	일병	45(15.31)	25(8.50)	28(9.52)	15(5.10)	113(38.44)
	상병	27(9.18)	12(4.08)	20(6.80)	10(3.40)	69(23.47)
	병장	16(5.44)	5(1.70)	27(9.18)	10(3.40)	58(19.73)
	교	11(3.74)	21(7.14)	4(1.36)	2(0.68)	38(12.93)
계		106(36.05)	70(23.81)	81(27.55)	37(12.59)	294(100.00)
$\chi^2 = 45.982 \quad df = 12 \quad p < 0.001$						

위 <표 3-8>은 인격지도 교육을 받고 싶은 횟수 차이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교와 계급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25.034와 45.982로 이들은  $p=0.05$ 수준과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026과 32.9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력 차 간에는  $\chi^2$ 의 값 6.543은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6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 청강기대 횟수가 ‘월1회가 좋다’ 이상에 천주교가 21명의 75%, 기독교가 84명의 70%, 불교가 29명의 52%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종교는 41명의 46%로 나타났다.

계급 간에는 이동병은 월 1회, 월 1회 이상에 높은 반응을 하였고, 상병은 월 1회에, 병장은 분기 1회 이상이 좋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병 때는 인격지도 교육 시간이 육체적, 정신적 휴식시간이 되므로 기대회망 횟수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3-7>에서 종교행사 참석 횟수는 주 1회 이상이 51%로 과반수 이상이나 인격지도 교육 청강기대 횟수 월 1회 이상에 과반수 이상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종교행사 참여를 인격지도 교육보다 더 참석하기 원하며, 인격지도 교육에도 무종교보다 종교를 가진 자의 참여도가 훨씬 높음이 확인되었다.

### (3) 인격지도 교육 시간의 적절성

<표 3-9> 인격지도 교육 시간의 적절성 검증 ( ): %

배경변인	문항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계
		현재 그대로가 좋다	줄였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학 력	고졸	46(15.49)	83(27.95)	11(3.70)	4(1.35)	144(48.48)		
	전문대졸	7(2.36)	18(6.06)	2(0.67)	0(0.00)	27(9.09)		
	대학재	36(12.12)	52(17.51)	7(2.36)	6(2.02)	101(34.01)		
	대학졸이상	12(4.04)	13(4.38)	0(0.00)	0(0.00)	25(8.42)		
	계	101(34.01)	166(55.89)	20(6.73)	10(3.37)	297(100.00)		
		$\chi^2 = 11.970$	$df = 9$	$p > 0.05$				
종 교	기독교	50(16.84)	64(21.55)	6(2.02)	2(0.67)	122(41.08)		
	천주교	10(3.37)	14(4.71)	2(0.67)	2(0.67)	28(9.43)		
	불교	16(5.39)	36(12.12)	4(1.35)	1(0.34)	57(19.19)		
	기타종교	0(0.00)	1(0.34)	0(0.00)	0(0.00)	1(0.34)		
	무종교	25(8.42)	51(17.17)	8(2.69)	5(1.68)	89(29.97)		
	계	101(34.01)	166(55.89)	20(6.73)	10(3.37)	297(100.00)		
		$\chi^2 = 10.577$	$df = 12$	$p > 0.05$				
계 급	이상병	8(2.69)	8(2.69)	0(0.00)	0(0.00)	16(5.39)		
	병증	37(12.46)	68(22.90)	5(1.68)	4(1.35)	114(38.38)		
	병장교	27(9.09)	33(11.11)	7(2.36)	3(1.01)	70(23.57)		
	병장교	11(3.70)	37(12.46)	8(2.69)	3(1.01)	59(19.87)		
	계	18(6.06)	20(6.73)	0(0.00)	0(0.00)	38(12.79)		
		101(34.01)	166(55.89)	20(6.73)	10(3.37)	297(100.00)		
		$\chi^2 = 26.864$	$df = 12$	$p < 0.01$				

<표 3-9>는 인격지도 교육의 시간의 적절성 차이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종교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11.970과 10.577로 이들은 모두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와 21.02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급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26.864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6.21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 시간이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반응이 166명으로 56%로 가장 높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가 101명의 34%, 줄였으면 좋겠다는 20명의 7%인 반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10명의 3%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이상은 ‘현재 그대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에 100%의 반응을 하였다. 따라서 더 있었으면 혹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90%로 현재 인격지도 교육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급 간에는 ‘더 있었으면 혹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에 이병이 100%, 일병이 92%, 상병이 86%, 병장이 81%로 계급이 낮을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간부들은 100% 적극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계급이 낮은 병사일수록 인격지도 교육 시간의 적절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3. 人格指導教育의 必要性 檢證

#### (1)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표 3-10>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 인식 검증 (%) : %

문항 배경변인		절대로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필요없다	계
학 력	고졸	29(9.70)	63(21.07)	47(15.72)	6(2.01)	145(48.49)
	전문대졸	7(2.34)	10(3.34)	10(3.34)	0(0.00)	27(9.03)
	대학재	19(6.35)	45(15.05)	35(11.71)	2(0.67)	101(33.78)
	대학졸이상	12(4.01)	10(3.34)	4(1.34)	0(0.00)	26(8.70)
	계	67(22.41)	128(42.81)	96(32.11)	8(2.68)	299(100.00)
$\chi^2 = 13.802$ df = 9 p > 0.05						
종 교	기독교	36(12.04)	59(19.73)	26(8.70)	2(0.67)	123(41.14)
	천주교	5(1.67)	11(3.68)	11(3.68)	1(0.33)	28(9.36)
	불교	10(3.34)	25(8.36)	22(7.36)	1(0.33)	58(19.40)
	기타종교	0(0.00)	1(0.33)	0(0.00)	0(0.00)	1(0.33)
	무종교	16(5.35)	32(10.70)	37(12.37)	4(1.34)	89(29.77)
	계	67(22.41)	128(42.81)	96(32.11)	8(2.68)	299(100.00)
$\chi^2 = 18.089$ df = 12 p > 0.05						
계 급	이상병	3(1.00)	9(3.01)	4(1.34)	0(0.00)	16(5.35)
	일병	26(8.70)	42(14.05)	43(14.38)	3(1.00)	114(38.13)
	상병	14(4.68)	31(10.37)	21(7.02)	4(1.34)	70(23.41)
	병장	10(3.34)	22(7.36)	26(8.70)	1(0.33)	59(19.73)
	교	14(4.68)	24(8.03)	2(0.67)	0(0.00)	40(13.38)
	계	67(22.41)	128(42.81)	96(32.11)	8(2.68)	299(100.00)
$\chi^2 = 31.190$ df = 12 p < 0.01						

위 <표 3-10>은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 차이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종교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13.802와 18.089로 이들은 모두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와 21.02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급 간에는  $\chi^2$ 의 값이 31.190으로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6.21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가 67명으로 22%, 상당히 필요하다가 128명으로 43%, 약간 필요하다가 96명으로 33%, 필요없다가 8명으로 3%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절대적으로 98%가 인정하였다.

계급 간에는 '약간 필요하다' 이상에 이병이 100%, 간부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병장이 58명의 98%, 일병이 111명의 97%, 상병이 66명의 94%로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은 모든 병사가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부대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2) 인격지도 교육시간의 타 교육시간과의 대비

<표 3-11> 인격지도 교육의 타 교육시간과의 대비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매우 유익하다	유익하다	모르겠다	유익하지 못하다	계
학 력	고졸	25(8.36)	76(25.42)	41(13.71)	3(1.00)	145(48.49)
	전문대졸	5(1.67)	15(5.02)	6(2.01)	1(0.33)	27(9.03)
	대학재	16(5.35)	58(19.40)	23(7.69)	4(1.34)	101(33.78)
	대학졸이상	9(3.01)	16(5.35)	1(0.33)	0(0.00)	26(8.70)
계		55(18.39)	165(55.18)	71(23.75)	8(2.68)	299(100.00)
$\chi^2 = 14.109$ df = 9 p > 0.05						
종 교	기독교	34(11.37)	66(22.07)	22(7.36)	1(0.33)	123(41.14)
	천주교	4(1.34)	17(5.69)	5(1.67)	2(0.67)	28(9.36)
	불교	9(3.01)	32(10.70)	16(5.35)	1(0.33)	58(19.40)
	기타종교	0(0.00)	1(0.33)	0(0.00)	0(0.00)	1(0.33)
	무종교	8(2.68)	49(16.39)	28(9.36)	4(1.34)	89(29.77)
계		55(18.39)	165(55.18)	71(23.75)	8(2.68)	299(100.00)
$\chi^2 = 21.698$ df = 12 p < 0.05						
계 급	이병	3(1.00)	13(4.35)	0(0.00)	0(0.00)	16(5.35)
	일병	21(7.02)	58(19.40)	32(10.70)	3(1.00)	114(38.13)
	상병	13(4.35)	38(12.71)	16(5.35)	3(1.00)	70(23.41)
	병장	8(2.68)	28(9.36)	21(7.02)	2(0.67)	59(19.73)
	교장	10(3.34)	28(9.36)	2(0.67)	0(0.00)	40(13.38)
	계	55(18.39)	165(55.18)	71(23.75)	8(2.68)	299(100.00)
$\chi^2 = 29.865$ df = 12 p < 0.01						

<표 3-11>은 타교육 시간과 대비한 차이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교와 계급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21.698과 29.865로 이들은  $p=0.05$ 수준과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026과 26.21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력 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14.109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이 다른 교육시간에 비해 유익하다가 165명으로 5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매우 유익하다는 55명의 18%, 모르겠다는 71명의 24%, 유익하지 못하다는 8명의 3%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익하다가 73%로 타교육시간과 대비 할 때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타났다.

계급 간에는 ‘유익하다’ 이상에 이병이 100%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병이 79명의 97%, 병장이 36명의 97%, 상병이 51명의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교는 35명으로 100%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어느 계급보다 이등병에게 있어서 인격지도 교육은 타교육시간과 대비할 때 상당히 유익한 시간으로 밝혀졌다. 간부들 역시 타 교육시간보다 인격지도 교육의 유익성을 충분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4. 人格指導敎育의 內容 檢證

### (1) 인격지도 교육 내용수준의 적절성

<표 3-12>      인격지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수준이 떨어져 지루하다	적당하다	그저그렇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계
학 력	고졸	12(4.04)	76(25.59)	51(17.17)	5(1.68)	144(48.48)
	전문대졸	0(0.00)	16(5.39)	10(3.37)	1(0.34)	27(9.09)
	대학재	8(2.69)	54(18.18)	34(11.45)	4(1.35)	100(33.67)
	대학졸이상	0(0.00)	22(7.41)	3(1.01)	1(0.34)	26(8.75)
계		20(6.73)	168(56.57)	98(33.00)	11(3.70)	297(100.00)
$\chi^2 = 16.838$ df = 7    p > 0.05						
종 교	기독교	8(2.69)	70(23.57)	39(13.13)	5(1.68)	122(41.08)
	천주교	3(1.01)	17(5.72)	7(2.36)	1(0.34)	28(9.43)
	불교	2(0.67)	36(12.12)	19(6.40)	0(0.00)	57(19.19)
	기타종교	0(0.00)	1(0.34)	0(0.00)	0(0.00)	1(0.34)
계		20(6.73)	168(56.57)	98(33.00)	11(3.70)	297(100.00)
$\chi^2 = 10.386$ df = 12    p > 0.05						
계 급	이상병	0(0.00)	14(4.71)	2(0.67)	0(0.00)	16(5.39)
	일병	10(3.37)	60(20.20)	36(12.12)	7(2.36)	113(38.05)
	상병	5(1.68)	37(12.46)	27(9.09)	1(0.34)	70(23.57)
	장교	5(1.68)	23(7.74)	29(9.76)	2(0.67)	59(19.87)
계		20(6.73)	168(56.57)	98(33.00)	11(3.70)	297(100.00)
$\chi^2 = 40.238$ df = 12    p < 0.001						

위 <표 3-12>는 내용의 적절성 차이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종교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16.838과 10.385로 이들은 모두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6.919와 21.02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급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40.238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32.9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의 내용수준이 적당하

다에 168명으로 57%로 제일 높았다. 그저 그렇다가 33%, 수준이 떨어져 지루하다가 7%의 순으로 나타났고,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는 4%도 있었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의 내용수준은 적당한 편으로 볼 수 있다.

계급 간에는 '적당하다'에 이등병이 14명의 88%, 일병이 60명의 53%, 상병이 37명의 53%, 병장이 23명의 39%, 장교가 34명의 87%로 나타났다. 이등병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수준이 떨어져 지루하다거나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병장은 가장 낮은 반응을 하였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 내용은 대체로 적당한 편이나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 (2) 인격지도 교육의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 활용 정도

<표 3-13> 인격지도 교육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 활용 정도의 검증  
( ) : %

문항 배경변인		많은 편이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아주 모자란다	계
학 력	고졸	11(3.69)	74(24.83)	45(15.10)	14(4.70)	144(48.32)
	전문대졸	1(0.34)	12(4.03)	13(4.36)	1(0.34)	27(9.06)
	대학재	5(1.68)	34(11.41)	57(19.13)	5(1.68)	101(33.89)
	대학졸이상	0(0.00)	12(4.03)	14(4.70)	0(0.00)	26(8.72)
	계	17(5.70)	132(44.30)	129(43.29)	20(6.71)	298(100.00)
$\chi^2 = 24.457$ df = 9 p < 0.01						
종 교	기독교	5(1.68)	54(18.12)	57(19.13)	7(2.35)	123(41.28)
	천주교	1(0.34)	12(4.03)	12(4.03)	3(1.01)	28(9.40)
	불교	6(2.01)	25(8.39)	23(7.72)	3(1.01)	57(19.13)
	기타종교	0(0.00)	1(0.34)	0(0.00)	0(0.00)	1(0.34)
	무종교	5(1.68)	40(13.42)	37(12.42)	7(2.35)	89(29.87)
	계	17(5.70)	132(44.30)	129(43.29)	20(6.71)	298(100.00)
$\chi^2 = 5.979$ df = 12 p > 0.04						
계 급	이상병	0(0.00)	11(3.69)	4(1.34)	1(0.34)	16(5.37)
	일병	11(3.69)	44(14.77)	51(17.11)	8(2.68)	114(38.26)
	병장	1(0.34)	37(12.42)	27(9.06)	5(1.68)	70(23.49)
	병장교	5(1.68)	13(4.36)	36(12.08)	5(1.68)	59(19.80)
	계	0(0.00)	27(9.06)	11(3.69)	1(0.34)	39(13.09)
$\chi^2 = 38.966$ df = 12 p < 0.001						

<표 3-13>은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 활용 정도의 차이 검증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계급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24.457과 38.966으로 이들은  $p=0.1$ 수준과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666과 32.9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종교의 차이에는  $\chi^2$ 의 값이 5.979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21.02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 활용 정도가 매우 많은 편이다가 17명으로 6%, 적당하다가 132명으로 44%, 부족하다가 129명으로 43%, 아주 모자란다가 20명으로 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당하다 이상이 50%, 부족하거나 아주 모자란다 역시 50%로 나타났다.

학력 차이에 따라 ‘많은 편이다, 적당하다’에 고졸은 85명의 59%, 전문대졸은 13명의 48%, 대재는 39명의 39%, 대졸이상은 12명의 46%로 나타났다.

계급 간에는 ‘적당하다’ 이상이 이병은 11명으로 69%, 일병은 55명으로 48%, 상병은 38명으로 54%, 병장은 18명으로 31%, 장교는 27명으로 6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 활용정도를 좀 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석된다.

## 5. 人格指導敎育의 敎官 檢證

### (1) 인격지도 교육 담당 교관의 적격자

<표 3-14> 인격지도 교육 담당 교관 적격자 검증 (%) : %

배경변인 \ 문항		군종장교가 좋다	각급 지휘관이 좋다	아무라도 좋다	제
학 력	고졸	78(26.44)	33(11.19)	31(10.51)	142(48.14)
	전문대졸	15(5.08)	5(1.69)	7(2.37)	27(9.15)
	대학재	57(19.32)	14(4.75)	29(9.83)	100(33.90)
	대학졸이상	18(6.10)	5(1.69)	3(1.02)	26(8.81)
계		168(56.95)	57(19.32)	70(23.73)	295(100.00)
$\chi^2 = 6.827$ df = 6 p > 0.05					
종 교	기독교	83(28.14)	18(6.10)	20(6.78)	121(41.02)
	천주교	14(4.75)	7(2.37)	7(2.37)	28(9.49)
	불교	24(8.14)	16(5.42)	17(5.76)	57(7.32)
	기타종교	1(0.34)	0(0.00)	0(0.00)	1(0.34)
	무종교	46(15.59)	16(5.42)	26(8.81)	70(23.73)
계		168(56.95)	57(19.32)	70(23.73)	295(100.00)
$\chi^2 = 15.629$ df = 8 p < 0.05					
계 급	이상병	9(3.05)	5(1.69)	2(0.68)	16(5.42)
	일병	69(23.39)	19(6.44)	25(8.47)	113(38.31)
	상병	34(11.53)	12(4.07)	21(7.12)	67(22.71)
	병장	28(9.49)	13(4.41)	18(6.10)	59(20.00)
	장교	28(9.49)	8(2.71)	4(1.36)	40(13.56)
계		168(56.95)	57(19.32)	70(23.73)	295(100.00)
$\chi^2 = 12.332$ df = 8 p > 0.05					

위 <표 3-14>는 담당 교관 적격자 차이 검증 결과이다. 여기에서 학력과 종교에 따라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6.827과 12.33으로 이들은 모두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2.592와 15.50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교차 간에는  $\chi^2$ 의 값이 15.629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chi^2$ 의 값 15.50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지도 교육 담당 교관 적격자로

서 군종장교가 좋다가 168명으로 57%, 각급 지휘관이 좋다가 57명으로 19%, 아무라도 좋다가 70명으로 24%로 나타났다.

종교차이에 따라 모든 종교가 군종장교를 1순위에 두었는데 기독교는 83명으로 69%, 천주교는 14명으로 50%, 불교는 24명으로 42%, 무종교는 46명으로 66%로 나타났다. 기독교가 최고수치를 기록한 반면, 무종교가 천주교, 불교보다 높은 수치로 군종장교를 선호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 담당 교관 적격자는 군종장교가 가장 좋다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 IV. 改善方向

### 1. 人格指導教育의 높은 參與度

인격지도 교육이 정신전력 함양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결론이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격지도 교육의 정신전력 기여도, 부대단결, 건전한 가치관 형성기여, 부대발전 및 사기진작, 부대의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 긍정적인 부대생활 기여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계급은 낮은 이등병일수록, 종교를 가진 자일수록, 학력이 대재이상일수록, 병사보다는 장교일수록, 수치가 높았다. 이등병일 때 뿐만아니라 전역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며, 참여도 높은 인격지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병사들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삶의 목적의식 및 사생관이 뚜렷하여 명랑한 병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격지도 교육의 참여도에서 현행되어지는 인격지도 교육의 시간은 분기 1회이나 인격지도 교육을 받고 싶은 횟수는 월 1회 이상에 과반수 이상이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그대로의 인격지도 교육시간에 만족한다는 병사는 55.89% 되었으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34.1%나 되었다. 따라서 인격지도 교육의 시간을 좀 더 늘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效果的인 人格指導教育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은 97%가 인정하였으며, 인격지도 교육의 타 교육시간과 대비한 유익성도 74%로 밝혀졌다.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

온 모든 병사가 인정하였다고 보나 인격지도 교육의 유익성에서 이등 병은 100%유익도를 보인 반면 다른 병사들은 좀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병사들에게 전역할 때까지 늘 새롭고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인격지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군종장교의 끝없는 노력과 더불어 군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인격지도 교육의 내용은 56%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가 33%, 수준이 떨어져 지루하다거나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가 11%나 되었다. 인격지도 교육의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편이다. 적당하다가 50%이며, 따라서 부족하다, 아주 모자란다 50%나 되었다. 결국 인격지도 교육 내용의 질적향상을 위해 군종장교의 특별한 노력과 더불어 종합행정학교의 군종학과나 군종감실의 교리장교의 연구에 의해 보다 현실적인 인격지도 교육 교재가 발간되어야 하겠다. 또한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의 양적확보를 위해 병과내의 재정지원 혹은 군복음화 후원회 및 민간 종교단체의 후원이 필요하다.

### 3. 軍宗將校 中心의 人格指導敎育

인격지도 교육의 교관의 대상으로는 군종장교가 57%로 가장 높았다. 종교에 따라서 볼 때 모든 종교가 군종장교를 1순위에 두었는데 특히 무종교는 천주교, 불교 보다 더 높은 수치로 군종장교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무종교자들도 군종장교의 인격지도 교육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인격지도 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군종교육을 위한 군종제도와 인격지도 교육실태에 대한 장병들의 견해를 검증하여 인격지도 교육의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처리방법은 각 문항별 빈도수 측정과 변인간의 유의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Chi-Square( $\chi^2$ )통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요약, 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要 約

- (1) 군종제도는 장병들의 필승의 신념을 배양, 올바른 가치관과 사생관 확립, 건전한 병영생활과 전력저해 요소 제거를 통한 정신전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앙전력화가 목표이기도 한 군종제도는 1950년 6.25 와중에 시작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신자수만도 전장병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군종교육은 모든 장사병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교육은 군종장교가 담당한다. 현재 3대 군종장교수 382명(기독교 272, 천주교 47, 불교 63)으로 파악되었다.
- (3) 군종교육의 주내용은 종교교육, 인격지도 교육, 기타교육으로 세분된다.
- (4)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격지도 교육의 기여도는 정신전력에 94%, 부대단결에 93%, 건전한 가치관 기여에 95%, 부대발전 및 사기진작에 86%, 부대의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에 92%, 긍정적인 부대생활 기여에 97%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무종교 보다 종교를 가진 병사들

이,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인의 수치가 높았고, 계급은 낮을수록 더 큰 기여도를 나타냈다.

(5) 인격지도 교육 참여는 월 1회 이상 참석하기 원하였고, 무종교 보다 종교를 가진 자가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병사들은 계급이 낮을수록 오히려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인격지도 교육의 시간운영은 현행대로가 좋다는 반응(56%)이었다.

(6)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98%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계급 간에는 이등병과 장교가 모두 유익하다(100%)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7) 인격지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적당하다에 56%로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33%, 수준의 떨어져 지루하거나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11% 나타남으로써 대체로 적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의 활용도에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50%나 되었다.

(8) 교관 적격자로는 현행의 군종장교가 1순위로 나타났고, 특히 천주교, 불교 보다 무종교인이 더 군종장교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였다.

## 2. 結論

첫째, 군종교육을 위한 인격지도 교육 설문의 모든 문항에서 이등병이 높은 수치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적극성을 보였고, 그외 병사들에서는 낮은 수치의 소극성을 보였다. 즉 낮은 계급일수록 군기가 잘 잡혔다는 결론이다. 낮은 수치의 경우 계급사회 또는 군종장교 교관의 부족 현상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육군은 연대 단위 이상에 1명의 군종장교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1

명의 군종장교로 장거리의 부대를 순회지도의 부담으로 인해서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연대단위 군종장교는 대부분 초임이므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육군 현병감실에 의하면 신앙을 가진 병사들이 군내 사고율이 2배로 적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전력화를 통해 1인 1종교 갖기운동을 전개하면 사고율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이등병일 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높은 참여도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관심도 높은 교육내용, 새롭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넷째, 현행의 교육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수준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의 부족현상도 나타났다. 시대의 발전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의 숫적확보를 위해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관은 군종장교가 1순위로 나타났는데 특히 무종교가 군종장교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무종교자들도 인격지도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인격지도 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군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군종장교의 구성비를 보면 기독교 272명, 천주교 47명, 불교 63명으로 총 38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군종장교 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현재 각 종파별 보직 인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군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종장교 수를 실정에 맞게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參考文獻

### 1. 國內文獻

- 고용수, 군진신학, 서울 : 군복음화후원회, 1985.
- 국방부, 정신전력 지침서, 국방부, 1984.
-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이스사, 1985.
- \_\_\_\_\_, 신앙을 통한 필승의 신념확인, 전우신문, 1986.2.7.
- \_\_\_\_\_, 장병들의 정신적 동반자, 전우신문, 1986.2.7.
-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56.
- 김의환, 교회사, 서울 : 세종문화사, 1981.
- 김홍태, 군신자화 운동이 군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감리교 신학대학원, 1985.
-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 100주년 선교대회 준비위원회, 한국선교대회 보고서, 서울 : 양서각, 1983.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목부, 군선교의 좌표, 서울 : 총회교육부, 1983.
- 민찬기, 군의 전인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중앙대학원, 1985.
- 박상칠, 정신전력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투입효과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광대학원, 1985.
- 박영수, 한국 군종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학원, 1986.
- 양영배, 군종편람, 서울 : 국방부 군종담당관실, 1970.
-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 서울 : 육군본부, 1981.

- \_\_\_\_\_, 군종 및 인격지도, 서울 : 육군인쇄공창, 1991.
- \_\_\_\_\_, 육군군종사, 서울 : 육군본부, 1975.
- \_\_\_\_\_, 한국의 군인정신, 서울 : 육군인쇄공창, 1982,
- \_\_\_\_\_, 육군 군종사, 서울 : 육군본부, 1984.
- 육군본부 군종감실, 군종운영계획, 서울 : 육군본부, 1984.
- \_\_\_\_\_, 군종운용계획, 서울 : 육군본부, 1992.
- \_\_\_\_\_, 군진신학, 서울 : 군복음화후원회, 1985.
- \_\_\_\_\_, 인격지도 13, 서울 : 육군인쇄공창, 1989.
- \_\_\_\_\_, 인격지도 14, 서울 : 육군인쇄공창, 1990.
-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학 I, 서울 : 제6지구 인쇄소, 1993.
- \_\_\_\_\_, 군종학 II, 서울 : 제6지구 인쇄소, 1989.
- \_\_\_\_\_, 인격지도, 서울 : 육군종합행정학교, 1993.
- 이용국, 외국군의 군종제도 연구, 서울 : 육군정신전력학회, 1983.
- 한기연, 현대교육사조, 서울 : 법문사, 1978.
- 홍온혜, 바다사랑 36년, 제해 36호, 별쇄.
- Richard G. Hutcheson, Jr. 박상칠 역, The Churches and The Chaplaincy, 서울 : 실로암, 1988.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이영현외 3인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0.

## 2. 外國文獻

Allport G.W.,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Y. : Macmillan Comp., 1950.

## # 附 錄

### 인격지도 교육 설문조사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하시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군종교육을 위한 인격지도 교육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에 대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군 정신전력에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평소에 느끼신 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94년 3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충빈 올림

# 인격지도 교육 실태 설문조사

## I.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 1.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 ② 전문대졸( ) ③ 대재( ) ④ 대졸이상( )

### 2.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 ② 천주교( ) ③ 불교( ) ④ 기타종교( )  
⑤ 무종교( )

### 3. 귀하의 계급은?

- ① 이병( ) ② 일병( ) ③ 상병( ) ④ 병장( )  
⑤ 장교( )

## II. 설문지

### 1. 인격지도 교육은 정신전력에 얼마나 기여합니까?

- ① 절대로 기여한다  
----- ② 상당히 기여한다  
----- ③ 약간 기여한다  
----- ④ 기여하지 못한다

### 2. 인격지도 교육이 부대단결에 얼마나 기여합니까?

- ① 절대로 기여한다  
----- ② 상당히 기여한다  
----- ③ 약간 기여한다  
----- ④ 기여하지 못한다

3. 인격지도 교육의 부대발전과 사기진작 기여도는 ?

- ①절대로 기여한다
- ②상당히 기여한다
- ③약간 기여한다
- ④기여하지 못한다

4. 인격지도 교육이 가치관(윤리관, 국가관 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①절대로 영향을 준다
- ②상당히 영향을 준다
- ③약간 영향을 준다
- ④영향을 주지 못한다

5. 인격지도 교육은 부대의 부조리 및 취약점 해결(보호사병선도 및 사고 예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①절대로 영향을 준다
- ②상당히 영향을 준다
- ③약간 영향을 준다
- ④영향을 주지 않는다

6. 인격지도 교육은 긍정적인 부대생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①절대로 영향을 준다
- ②상당히 영향을 준다
- ③약간 영향을 준다
- ④영향을 주지 못한다

7. 종교행사 참석횟수는?

- |              |           |
|--------------|-----------|
| -----①주2~3회  | -----②주1회 |
| -----③월2~3회  | -----④월1회 |
| -----⑤월1회 이하 |           |

8. 군종장교가 교관이 되는 인격지도 교육을 어느정도 받고 싶습니까?

- ①월1회가 좋다
- ②월1회 이상이 좋다
- ③분기 1회 이상이 좋다
- ④년간 1회 이상이 좋다

9. 군종장교가 하는 인격지도 교육 시간은?

- ①더 있었으면 좋겠다
- ②현재 그대로가 좋다
- ③줄였으면 좋겠다
- ④없었으면 좋겠다

10. 인격지도 교육의 필요성은?

- ①절대로 필요하다
- ②상당히 필요하다
- ③약간 필요하다
- ④필요없다

11. 인격지도 교육 시간은 다른 교육시간에 비해 어떠합니까?

- ①매우 유익하다
- ②유익하다
- ③모르겠다
- ④유익하지 못하다

12. 인격지도 교육의 내용수준은?

- ①수준이 떨어져 지루하다
- ②적당하다
- ③그저 그렇다
- ④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13. 인격지도 교육시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 활용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많은 편이다
- ②적당하다
- ③부족하다
- ④아주 모자란다

14. 인격지도 교육의 교관은?

- ①군종장교가 좋다
- ②각급 지휘관이 좋다
- ③아무라도 좋다

## **ABSTRACT**

### **A Study in the Actual Condition of Personality Improvement Education and its Amelioration Plan for Religious Education for Military**

**Kim, Chung-Bin**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groping the effective amelioration direction of the Personality imoprovement Education based upon the servicemen's opinions concerning the actual condition of P.I.E, the chaplin system and the Religious education for Military.

The statistical method of Chi-Square( $\chi^2$ ) Test was applied to the handling the final result of the servey.

As a result, the following cnclusion was drawn :

First, while the private showed positiveness by having a high degree of response to the servey, other sevicemen showed a

low degree of negativeness.

It show that the servicemen of lower ranks had a good military discipline it is said that the reason for the low degree of response includes the phenomenon of the lack of the teaching staff the military religion officer and the class society.

One military religion officer is posted and active at more than the unit of battalion in the army, one military religion office has the burden of making a tour instruction of the long-distance troop. Hence The number of military religion officer is considerably poor. Most military religion officers belonging to the unit of battalion are newly appointed, and so they have an in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ir jobs. Thus condition for military religion officers should be improved.

Secondly, according to the provost marshal headquarters, the servicemen any religion have caused twice as few accidents as those without any religion. Accordingly, the campaign for and-man-one-religion could bring about the reduction of accidents through the propagation of religion to servicemen.

Thirdly, the servicemen are desperate to have a high degree of participation in religion not only at their private days but continually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it is indispensable to develop the content of education capable of receiving a high degree of participation and new and effective program.

Fourthly, not a few servicemen responde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urrent content of education and the content of education has a low level. Thus a need for the research center capable of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is required

Fifthly, the deficient phenomenon of teaching materials and auxiliary materials for education happene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to secure a number of auxiliary material for education and teaching materials both scientific and up-to-date in keeping with the development of times.

Sixty, it was shown that the military religion officer ranked top as the teaching staff, and especially it was understood that the servicemen without any religion prefer the military religious office. Accordingly, since the servicemen without any religion are helped in their spiritual stability or problem-solving through religious education activ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for religious education for military.

Seventhly, to refer to the composition of the military religious officers in charge of military religion education, the number of the military religious officers consists of 272 christians, 47 Catholics and 63 Buddhists, which totals 382 officers. It is disputation whether the number of military religious officers is reasonable.

A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current problem,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military religious officers through recruitment suitable to the actual situation and expand it to the optinial number while maintaining the present state of military religion education for its qualitation improvement for the present situation is that personnel assigned to the post of the military religious officer by each sects is considerably insufficient.